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새 옷 입은 공군



GLOBAL & INSIGHT

06



- 06 삼각지 논객 그대 왜 그곳에 서 있나?
- 08 Pioneers up above 줄리오 두헤
- 10 World-Wide Vision 파병기지 순회 임무
- 14 Global AF 현대 항공전의 신기원을 이루다. 몰 크리켓 19 작전
- 18 Leadership+ 리더십의 뉴패러다임

공군IN

20



- 20 기획특집 새 옷 입은 공군!
- 32 만나고 싶었습니다 공군애호단체 대표들의 신년축하메시지
- 34 참모총장 스케치
- 36 AIR FORCE MONTHLY 2012. 01. NEWS
- 38 생각하는 그림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는 나무

COVER STORY



임진년 새해, 새로운 복제로 공군이 거듭납니다.
 표지촬영(앞) 백동석 | 포토그래퍼
 표지촬영(뒤) 제17비행단 정훈공보실

CULTURE 36.5

42



- 42 Hollywood English 머니볼
- 44 인생은 아름다워 유머 코드의 오페레타 <박쥐>
- 46 Art in Everyday 당신의 집은 어디인가
- 48 Air-Supply 어른이, 아이유
- 50 Preview 1월의 문화행사

OPINION

52



- 04 Letters to the Editor 월간 「공군」 11월호를 읽고서
- 52 독자기고 당신은 머리 위의 푸른 하늘만 보는가
충분히 송고하고 명예로운 희생
- 54 Health Diary 겨울철, 건강한 심혈관 관리를 위해!
- 56 책마음 2012년을 맞이하며

MONTHLY MAGAZINE

VOL. 403. 2012. 01

발행일자 2011년 12월 30일(통권 제403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35, 042-552-6935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최영훈 편집감수 중령 손경수
기획·편집 소령 조세영, 중위 류재영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960-7443~7445, 042-550-7443~744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QR 코드 안내

월간 「공군」은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독자들과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QR 코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통해서도 독자의견 및 퀴즈 응모를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R 코드는 표지와 57페이지에 있습니다.

11월호를 읽고서

L E T T E R S T O T H E E D I T O R

01 월간 「공군」은 **교과서**이다. 월간 「공군」은 내 꿈을 향해 나가고
 록 도와주는 교과서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내 꿈은 공군에
 입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Global AF>의 '현
 대 공중전의 역사를 쓰다, 라인베커 작전'을 가장 재밌게 읽었습
 니다. 미 공군과 해군 항공대의 격추교환비 자료를 보니, 평소 훈
 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푸짐하고
 알찬 정보 부탁드립니다. - 경기 안양시, 임도혁

02 월간 「공군」은 **말생각**이다. 매스컴의 공군뉴스나 잡지, 거리의
 공군장병들을 보면, 2년 전 공군으로 입대해 충실히 복무하고
 있는 말 생각이 절로 납니다. 이번 호에서는 <기획특집> '제3
 기 국민조종사, 모두의 꿈을 안고 날다!'라는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공군에서 2년마다 국민들을 위해 준비한 이런 이
 벤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 번 도
 전해 보고 싶습니다. 월간 「공군」을 통해 공군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월간 「공군」 편집실의 무
 운장구를 기원합니다. - 광주 남구, 오남록

03 월간 「공군」은 **슈퍼스타 K**다. 최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슈퍼스타 K'처럼 자꾸자꾸 다음 편이 보고 싶은 중독성 있고
 흥미로운 간행물이다. 매월 「공군」을 읽지만 11월호에서 나온
 <기획특집> '제3기 국민조종사, 모두의 꿈을 안고 날다!' 이야기는
 우리 부대에서 해서 그런지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다음 제4기 국민조종사에 지원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 이름을
 올리고 싶습니다. - 경기 성남시, 이흥복

04 월간 「공군」은 **젊음**이다. 아들이 현재 공군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어, 월간 「공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월간 「공군」을 보면 공
 군인들의 젊음이 느껴집니다. 아들이 공군인임이 정말 자랑스럽
 습니다. 아들을 공군에 보낸 어머니의 입장에서 공군병사들이 생
 활관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일과 후에는 어떤 일들을 하
 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월간 「공군」이 이를 다뤄보는 것도 좋
 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공군소식과 재밌는 기사들로
 공군을 널리 알렸으면 합니다. 월간 「공군」 파이팅!
 - 부산 금정구, 임현준

05 월간 「공군」은 **수능**이다. 보고 나면 시원하고 개운하기 때문
 보고 나면 유익하기도 하고~ 저는 공군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남자들의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11월호 <기획특집> '제3기 국민
 조종사, 모두의 꿈을 안고 날다!'를 보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었습니다. 이제 우리사회도 여자조종사가 익숙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쭉~ 계속하셔도 좋을 겁니다!!
 지금 월간 「공군」의 구성이 अच्छ다고 생각하거든요.
 - 제주 서귀포, 양가인

06 월간 「공군」은 **여자친구**다. 여자친구와 함께 있으면 재밌고
 행복하듯이, 월간 「공군」을 읽고 있으면 시간가는 줄도 모르
 고 읽게 됩니다.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어,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번 호에서는 <Air-Supply>의
 '위로가 필요해'라는 기사를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글을 읽
 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며 찢했습니다. 필승! 2여단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병 허지행입니다. 아직 군 생활 1년이나 남
 았지만 월간 「공군」을 보면서 군생활의 여유와 재미를 느끼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동적인 글, 유쾌한 글 부탁드립니다
 니다! - 충남 천안시, 허지행



Global & Insight

삼각지 논객 그대 왜 그곳에 서 있나?

Pioneers up above 줄리오 두혜

World-Wide Vision 파병기지 순회 임무

Global AF 현대 항공전의 신기원을 이루다. 몰 크리켓 19 작전

Leadership+ 리더십의 뉴패러다임



그대 왜 그곳에 서 있나?

— 임진년 새해, 한 記者가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 —

비상대기(非常待機)

가만히 앉아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생각하노라니, 가장 먼저 이 말이 떠오르네요. 언제 어떤 상황이 터질지 모르는 만큼, 항상 출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에 그럴것지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기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답니다. 특히 국방부 출입기자들은 말이죠.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 적당히 불안해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거치면서 이런 '불안감'은 더욱 커진 듯합니다.

지금 이 글을 마감하고 있는 12월 19일도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날 서울 삼각지 국방부 인근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다가 북한 김정일 사망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밥손가락을 놓게 되더군요(사실 밥그릇을 거의 비운 상

태이긴 했습니다^^), 식당을 나와 기자실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군요. '이건 또 얼마나 (사회적 이슈로 이어져) 갈까?'

투닥투닥 1판 마감 시간에 맞춰 기사를 송고하고 나니 또다시 '휴~' 하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연월차를 소진한다는 핑계로 휴가를 내어 크리스마스 직후 가족들과 함께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한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주행은 아무래도 취소 또는 연기가 불가피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치기 힘들더군요. 요즘 한창 기대에 부풀어 있는 집사람이 아쉬워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어떨까요. 이쯤이면 반복되는 훈련, 시도 때도 없이 걸리는 비상에 긴장을 풀지 못하고 사는 군인들 못지않은 삶 아닌가요?

역지사지(易地思之)

부자가 천국에 가기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취재원에게 진심으로 환영받기도 그에 못지않게 어려운 일입니다. 언론의 속성이란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 잘못돼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사다난하고 변화무쌍한, 너무나도 다 이내막한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잔잔한 미담' 보다는 '강력한 고발'이 더욱 더 선호됩니다.

이는 군이라는 취재 영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군 모 부대가 계획했던 대로 훈련을 잘 완수했다면? 안타깝지만, 기사가 안 됩니다! 이 부대 훈련 도중에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면? 기사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전자의 경우를 주목해줬으면 하는 군 당국의 바람과 달리, 언론은 군이 애써 숨기고 싶어 하는 후자를 쫓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안이 이슈로 떠올랐을 경우, 군 당국자들과 기자들은 숨바꼭질을 하거나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죠. 평상시에도 찌릿찌릿 전기가 튀는, 긴장감 섞인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요.

쫓는 자와 쫓기는 자. 군 관련 언론 보도를 둘러싼 언론과 군 당국의 관계는 보통 이럴 것입니다. 총이나 칼이라는 무기를 든 군인들로서는 펜을 든 기자에게 (때로는 부당한 수준으로)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느낄 법한 일들도 적지 않게 일어날 것입니다.

화이부동(和而不同)

쫓고 쫓기는 언론과 군의 긴장 관계를 얘기했지만, 알고 보면 앞서 얘기한 '비상 대기' 처럼 군인과 기자들 사이에는 공통점도 적지 않습니다. 그 중 하나는 평소 관심이나 임무가 우리 사회, 즉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군인은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는 게 임무이자 존재 근거일 것입니다. 기자들은 공동체를 흔탁하게 만드는 사람이나 사건을 드러내 보여 사회정화에 기여하는 게 존재 이유입니다. 군이 단단한 껍질을 구축해 안전한 공동체를 유지시킨다면, 기자들은 내부정화를 통해 공동체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한다고나 할까요.

군인과 기자는 성격 면에서도 비슷한 점이 꽤 있습니다. "조국의 안전을 맡을 자는 창조적인 두뇌보다는 냉정하고 상황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반성적인 두뇌 소유자다." <전쟁론>이란 저작으로 유명한 프로이센의 장군 칼 폰 클라우제비츠의 말입니다. 어떤가요, 맞는 말 아닌가요? 그런데 이는 기자에게도 적용되는 얘이기도 합니다. 창조적이기보다는 냉정한 두뇌, 자유로운 상상의 나라를 펼치기보다는 상황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핵심을 꿰뚫는 능력이 기자에게도 필요합니다. 결국, 공동체의 유지나 발전에 목적을 두는 이들에게는 이런 덕목이 필수인가 봅니다.

그렇다면, 창조적인 두뇌는? 아무래도 지킴의 대상이 되는,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이들에게 좀 더 어울리는 덕목이겠죠. 임무나 관심이 사회

보다는 개인 내면을 향해 있는 예술가나 과학자들, 또는 사업가 등이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을 바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부가 가치를 늘리겠조(물론 이들도 이런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유지에 이바지하고 있기에, 누구를 위에 놓거나 아래에 놓고 볼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엄이도종(掩耳盜鐘)

대학교수들이 2011년 한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선정했다는,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자기만 듣지 않으면 남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결코 넘어가지 않을 알은수로 남을 속이려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 지난해 교수들이 뽑았다는 '꼬리는 내놓은 채 머리만 감추고 있다'는 뜻의 장두노미(藏頭露尾)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히는 듯합니다.

이런 사자성어는 모두 지금 세상이 혼탁하고 거꾸로 서 있으며, 그래서 우리 삶은 팍팍하다는 것을 예들려 표현하는 것을 아닐까요. 실제 요즘 뉴스를 보면 '양극화', '취업난', '가계 부채' 등과 같은 암울한 용어들과 '집단 자살'이나 '존속 살인' 같은 살벌한 사연들이 춤을 춥니다.

공동체를 둘러싼 외부 환경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의 신경전 속에 동북아의 각국이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아직도 전쟁의 화염이 꺼지지 않았고, 유럽발 경제위기는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는 냉기만이 가득합니다. 여기에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의 예측 가능성은 더욱 떨어지고만 있습니다.

희망사수(希望死守)

그래서일까요. 군과 언론의 또 다른 공통점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바로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사회 그 어느 직업군, 그 어느 분야보다도 제대로 된 역할이 강력히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내외환이 닥쳐오는데 내부적으로 언론을 제대로 띄워 자정능력을 키우고, 외부적으로 방비를 굳건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언론과 군의 긴장 관계란 것도 알고 보면 우리 사회를 각각 안과 밖에서 제대로 지키고자 하는 활동들의 산물 아닐까요.

어느덧 2011년 한해가 저물었고 2012년 새해가 솟았습니다. 우리 사회 안팎의 사정이 녹록지 않기에 이럴 때일수록 희망이란 단어가 소중한 것은 군인이나 기자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산에 오르나?"라는 질문에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밟은 조지 레이 말로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산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이 문답을 흉내 내면 어떨까요. "그대 왜 그곳에 서 있나?"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답을 내놓겠습니까? **AF**





줄리오 두헤
Giulio Douhet
(1869~1930)

줄리오 두헤는 이탈리아 카서타의 전통적인 군벌 문중에서 태어나 소신있게 자란 청년이었다. 어린 시절 그는 문학에 빠져 희곡을 습작하기도 했는데, 이는 그만의 세계를 그리는 작업으로써 두헤의 불굴의 개성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두헤는 모데나 군사학교(Modena Military Academy)를 졸업하고 보병 장교로 임관하였다. 두헤는 1900년대 초 육군 장교로 총참모부에 근무하며 군의 기계화에 관한 강의록을 작성했는데, 신기술의 군사적 이용을 강조한 내용이었다. 이후 항공기가 출현하자 그는 항공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으면서도 항공력의 군사적 잠재역량을 직관적으로 알아보고, 그 즉시 항공력 예찬가가 되었다.

두헤는 1909년부터 이탈리아공군에 관여하였다. 그는 한 저널의 기고문에서 앞으로 항공기가 미래전쟁의 주도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두헤는 "이제까지 우리는 지표면에 머무는 전쟁에 익숙해왔는데 앞으로는 하늘에서 결정할 것이다. 바다에 접하지 않은 나라는 있어도 하늘과 접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 하늘을 통한 전쟁은 모든 나라에게 예외 없이 중요시 될 것이다. 육군과 해군은 이제 비록 신생이긴 하지만 훨씬 더 강력한 공군을 형태로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공군 출현의 서막을 선포했다.

두헤는 지상군지휘관들에 의해 족쇄가 채워져 있는 항공력의 엄청난 잠재력을 인식하고는 항공인에 의해 지휘되는 독립 공군의 창설을 주창하였다. 그는 젊은 항공엔지니어 지아니 카프로니(Gianni Caproni)와 협력하여 수년 동안 항공력의 강점을 군내·외에 설파하였다.

1911년 이탈리아는 리비아를 놓고 터키와 전쟁에 돌입했는데, 당시 두헤는 9대의 항공기로 구성된 항공대의 지휘관으로 참전했다. 1911년 10월 23일, 항공대는 첫 전투정찰을 실시했고, 11월 1일에는 첫 폭격임무와 사진정찰을 수행하였다. 이 같은 전과를 바탕으로 이탈리아는 두헤를 단장으로 하는 항공단을 창설하였다.

두헤는 항공기의 최우선적 임무는 고고도에서의 전략폭격임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근거한 항공력의 역할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1912년 두헤는 최초의 항공력교리라고 할 수 있는 '전쟁에서 항공기의 운용에 관한 규칙'을 작성했던 이탈리아 튜린항공대의 지휘관으로 내정되었다. 하지만, 두헤의 열정적인 항공력 사상은 그를 '급진주의자'로 낙인찍게 만들었다. 두헤는 상관들과의 심한 알력 속에 상부의 승인 없이 친구인 지아니 카프로니로 하여금 300마력의 카프로니 폭격기를 제작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 보병부대로 전출되었다.

두헤는 이탈리아가 항공력 중심의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중지배권을 확보하면 큰 피해 없이 적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하루에 125톤의 폭탄을 퍼부을 수 있는 500대의 폭격기를 건설하자고 주장했지만 군지도부에 의해 무시되었다. 1915년 이탈리아가 전쟁에 돌입하자 두헤는 육군의 무기력한 전쟁대비에 충격을 받고 그의 상관 및 정부 고위관료들의 전쟁 지휘를 비판하면서 항공전으로 전쟁을 승리하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군 지휘부의 전쟁계획이 논란에 휩싸였는데, 두헤는 이 무모한 계획은 이탈리아에 엄청난 재난을 초래하며 패전할 것이라고 다시 강하게 비판하면서 수정을 요구하였다. 결국, 군 지휘부는 두헤를 거짓된 뉴스와 선동을 퍼뜨리고 있다고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1년의 징역형에 처했다. 감

옥에서 두헤는 항공력에 관한 저술에 몰두하였고, 각료들과의 교신을 통하여 대규모 연합항공단을 건설할 것을 제언하였다. 두헤가 형을 마쳤을 때인 1917년 11월, 이탈리아는 카포레토전투에서 사상 초유로 60만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대참패하였다.¹⁾ 패전에 관한 조사 결과 두헤의 주장이 옳았음이 입증되었고 두헤는 복권되어 장군으로 승진하면서 항공사령관에 임명되었다.

1918년 6월, 두헤는 군 지도부에 여전히 팽배해 있는 항공력 배척 정서에 질려서 사임하고 군을 떠나 저술활동에 전념했고, 마침내 1921년 불후의 명작 '제공권(The Command of the Air)'을 출간하였다. 두헤는 3차원에서 작전하는 항공력은 가히 혁명적인 군사력이라고 주장하면서 항공기는 지상군의 상공을 비행하면서 지상군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광대한 창공은 방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공력의 본질은 공세적인 전력이며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주장하였다. 폭격으로 적 항공력을 무력화시키고 제공권을 달성하면 수세에 몰린 적을 지속 폭격함으로써 궤멸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써, 제공권은 곧 전쟁승리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두헤는 항공폭격이 국민의 사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신봉하였다. "폭격기는 어디든 날아다닐 수 있다"는 명제하에 항공력은 적의 상공을 큰 피해 없이 비행하여 상대국의 치명적인 중심들인 정부청사, 군사본부, 산업중심들을 공격함으로써 적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항공전략의 핵심은 표적을 획득하는 것인데, 두헤는 항공지휘관들이 그들의 능력에 따라 충분히 표적을 선정할 수 있다고 믿었다. 두헤는 표적을 산업시설, 교통망, 통신망, 정부 및 국민들의 전쟁수행의지 등 5가지 범주로 분류하였고, 그중에서도 국민의지를 매우 중요시했는데 그는 총력전사상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종합하면, 두헤의 사상은 항공력의 운용과 전략폭격을 통한 전쟁승리로 요약될 수 있다. 두헤는 전쟁에서 전략폭격을 통한 고가의 희생강요는 적 국민들의 전쟁의지를 분쇄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항공폭격으로 적이 수세에 몰리면 시민들은 이를 방어하지 못한 정부를 비판하며 봉기하여 정권을 퇴진시킨다는 논리이다. 두헤는 그의 가상소설, '19xx의 전쟁'에서 독일과 프랑스-벨기에 연합군 전쟁을 가정하였는데 독일군은 도심폭격을 통해 지상군이 진격하기도 전에 전쟁을 단기간에 승리로 종결한다는 내용이다. 한 예로 두헤는 웬만한 도시를 굴복시키는 데는 300톤의 폭탄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²⁾

이 같은 두헤의 항공사상은 대중들에게는 선호됐지만, 반면 당시 이탈리아의 군 지도부, 특히 육군과 해군 지도부로부터는 심하게 견제받았다. 그들은 두헤의 사상을 과장된 망상이라고 일축하면서 이를 반박할 기회들을 찾는데 진력했다. 이 같은 공박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심지어는 제2차 세계 대전 시 연합군이 유럽 전역에 퍼부은 폭탄이 250만 톤에 달했지만 도심을 굴복시키는 커녕 오히려 독일국민들의 복수심만을 불러일으켰을 뿐이고, 전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식의 비판적 주장들이 주로 지·해상군전략가들로부터 쏟아졌다.

두헤는 1922년 베니토 무솔리니 수상에 의해 항공사령관으로 부름 받았지만 사양하고 저작활동에 몰두하여 "미래전은 항공전이 될 것이며 우세한 항공력을 보유한 측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대명제를 남기고 1930년 로마에서 운명하였다.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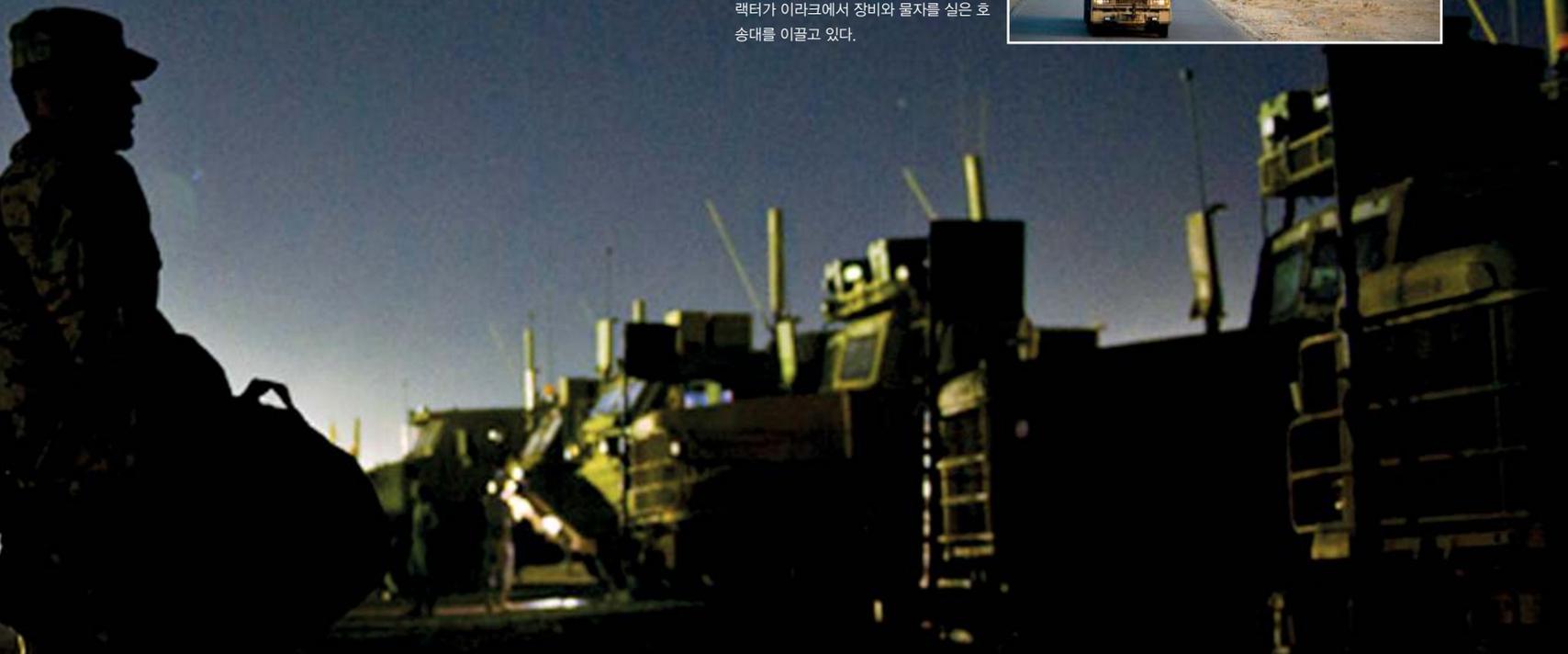
1) http://en.wikipedia.org/wiki/Battle_of_Caporetto (2011.12.4)
2) Giulio Douhet, "Rivista Aeonautica," July 1928.

Rounding the bases

파병기지 순회 임무

Air Force truckers haul U.S. cargo out of Iraq
공군 트럭 수송요원들의 이라크 장비 철수 임무

미 공군 제70중형 트럭수송대의 호송대장인 데이비드 페레즈 하사가 7일간 임무 중 첫째 날을 마친 후, 뺨곡히 주차된 트럭들 사이를 지나고 있다. 페레즈 하사는 차량 43대의 1,100마일에 이르는 호송대의 책임을 맡고 있다. 이러한 수송 임무를 위해 호송대는 최종 탑재 지점에 도달하기 전, 이라크 내 여러 기지를 거쳐 가게 된다.



- 1
- 2

1. 미 공군 제70중형 트럭수송대의 인원들과, 미네소타 주 방위군 육군 소속 1-94 기갑 부대 대원들이 임무에 앞서 자신들의 의식에 따라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있다. 이라크에서 장비와 물자를 철수하기 위해 이들은 60명의 인원과 43대의 차량으로 7일에 걸쳐 1,100마일을 수송하게 될 것이다.

2. 미 공군 제70중형 트럭수송대의 M915 트랙터가 이라크에서 장비와 물자를 실은 호송대를 이끌고 있다.



합동임무 브리핑을 마친 공군 제70중형트럭 수송파견대와 육군의 호송팀은 이내 곧 서로에게 자신의 목숨을 의지하는 전우가 된다. 주인공은 공군 제70중형트럭 수송대원들과 육군 미네소타 주 파인시티 소재의 주방위군 1-94 기갑 부대의 장병들로서, 이들은 최근 미 국방부의 철군 계획에 따라, 이라크 전역에 걸친 수송 및 호송 협조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미 공군 70수송대 및 424트럭수송대 소속 350명의 부대원들은, 올해 12월 31일로 예정된 이라크 내 미군철수 기한에 맞춰, 하루도 빠짐없이 이라크의 육상 도로를 달리며 장비 및 물자 수송임무를 수행 중이다. 특히 최근 몇 달 사이, 미 공군 387원정 군수대대의 이라크 내 트럭 수송 임무량은 과거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달, 저희가 이곳에 도착하였을 때 저희 대대의 수송 임무는 한 주당 평균 11건 정도에 달했습니다.” 미 공군 387원정 군수대대장, 존 오코너(John

O'Connor) 중령이 말했다. 이 수치는 이들이 한 달 평균 35회 정도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알려준다.

육군 동료들과 한 팀을 이뤄 호송작전을 협조하는 공군 장병들은 이곳 이라크에서 2005년 11월부터 트럭 수송임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이라크 내의 모든 기지를 도는 호송임무는 한가로운 공원 산책이 아니다. 각 구간의 수송 임무를 위해서는 최소 3시간 이상의 준비시간이 소요된다. 부대원들은 민간 계약된 트럭운전수를 집결시키고 교육하며, 수송트럭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한다. 또한 무장 트럭에 화기를 탑재하고, 라디오 통신을 체크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무장트럭 및 호송대장이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임무 브리핑을 마쳐야만 실제 수송임무가 시작된다.

출발 이후 6박 7일에 걸쳐, 이들 수송부대원들은 1,100 마일(약 1,760km)

에 이르는 사막지대, 도심지 및 고속도로를 이동하게 된다. 언제 어디서 갑자기 총알이나 포탄이 날아올지, 매설된 급조폭발물이 터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임무 중, 호송대는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한번은 공군 수송트럭이 화염에 휩싸였지만, 불길을 진압할 수 있는 육군 지원팀이 90초 이상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 이때 육군 통신 기기가 트럭운전수와 교신이 되지 않자, 공군 병사가 현장에서 라디오를 조작해, 통신망을 복구한 적도 있다고 한다. 수송부대는 이러한 팀워크로 인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이는 그동안 이들이 쌓아온 기록에서도 잘 나타난다.

“수송임무를 통해, 우리는 이제까지 약 250,000파운드의 수송물자를 철수했습니다.” 호송대장인 데이비드 페레즈(David Perez) 하사가 말했다. 페레즈 하사가 언급한 수송물자는 이라크 내에 있는 두 군데의 미군 기지로부터 운송됐으며, 임무에 필요한 차량, 전투복, 장비 및 기타 다양한 물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군과 육군 두 팀은 6일 밤낮에 걸친 임무로 인해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도로에서 1마일 그리고 또 1마일을 함께 내딛으며 쌓은 우정이 합동임무의

성공을 가져온 것이다. 처음에는 공군과 육군, 타군 소속이라는 심리적 이질감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수송임무가 끝날 무렵에는 이러한 구분이 중요치 않게 되었다. 임무를 끝낼 때쯤, 이들은 진정한 한배를 탄 형제(band of brothers)로 거듭나게 되었다. 공군과 육군 장병들은 서로의 놀이를 공유하고, 임무에 앞서 각 부대에서 실시하는 고유의식이나, 업무의 노하우 등을 나누며 친구가 되었다.

“페이스북(Facebook, 미국의 유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으로 친구 신청하세요.” 임무를 마친 후, 한 공군 병사가 육군 동료에게 말했다.

미 육군 1-94 기갑부대 무장트럭 선임 부사관인 브라이언 시엘스키(Brian Sielski) 상사는 미 공군 70수송대와 424트럭수송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70수송대와 424트럭수송대는 저희가 함께 임무했던 부대 중 최고입니다.” 시엘스키 상사가 말했다. “다른 임무에서도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든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한 번 방법을 찾아봅시다.” **AF**

1. 미 공군 제70중형 트럭수송대 호송팀장인 데이비드 페레즈 하사가 이라크 내 장비 철수 임무에 앞서, "rock drill"을 통해 팀원들에게 호송작전의 전술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
2. 미 공군 제70중형 트럭수송대의 게리 페레리 상사가 이라크 내 장비 철수 호송 임무 수행 중, 정비 트럭을 운전하고 있다. 페레리 상사는 7일간 1,100마일에 이르는 이라크 내 장비 철수 임무 지원을 위해 43개의 차량에 주요 정비점검을 지원한다.
3. 미 공군 제70중형 트럭수송대의 호송대장인 데이비드 페레즈 하사(왼쪽)가 7일간의 이라크 내 호송임무 중, 운전수인 라이언 베이커 병장과 대화하고 있다.



미 공군 제70중형 트럭수송대에 소속의 한 장병이 7일 중 첫날 임무를 마친 후 텐트로 돌아가고 있다.



- 1
- 2
- 3

1. 첫째 날 수송 임무를 마친 미 공군 제70중형 트럭수송대의 장병들이 텐트 내 침상을 설치하고 있다. 이라크 내 많은 기지들에서는 철수 및 지원 서비스가 감소됨에 따라, 트럭수송병을 위한 숙박 시설이 제한되어 있다.
2. 미 공군 제70중형 트럭수송대 소속인원들과 미 육군 미네소타 주방위군 1-94 기갑부대의 인원들이 임무에 출항하기 전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 호송대는 이라크에서 장비 및 물자를 철수하기 위해 7일간에 걸친 1,100마일의 거리를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수송 경로에는 소형화기, 박격포 및 도로 폭발물 등의 다양한 위협이 존재한다.
3. 전방작전 기지인 워리어 기지에서 라이언 베이커(Ryan Baker) 병장이 민간 운전기사와 함께 지뢰-기습공격 방어용 차량을 트레일러에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베이커 병장은 플로리다 주 할버트 공군기지에서부터 파병됐으며, 이라크에서 수송임무에 참여하는 43대의 차량 중, M915 트랙터 운전을 담당하고 있다.
4. 미네소타 주 방위군 1-94 기갑부대 소속의 포격수인 네이든 하이탈러(Nathan Hietala) 육군 상병이 50밀리 기관총을 지뢰-기습공격 방어용 케이먼 차량에 탑재하고 있다. 이 부대는 이라크 내 장비 및 물자 철수를 위한 수송임무에 참여하는 43대 차량에 방호를 지원하고 있다.
5. 이라크 내 합동기지인 발라드 기지에서 화생방장비를 탑재한 팔레트(pallet)가 차곡차곡히 쌓여 있다. 이라크 내 미군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원 장비 및 물자는 철수를 위해 포장되어 있다.
6. 미 공군 제70중형 트럭수송대 소속 장병이 장비와 물자를 싣고 호송대의 선두에서 수송임무를 수행 중인 모습

- 4
- 5
- 6



새해를 맞은 <Global AF>가 새로운 필진으로 독자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지난 호까지 <Global AF>를 담당했던 양욱 Intel-Edge 대표에 이어, 김대영 Intel-Edge 국방조사팀장께서 이 코너를 맡아주셨습니다. 김대영 씨는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0여 년 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국방 언론분야에 종사했으며, 현재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의 편집위원, 네이버캐스트 '무기의 세계' 필진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대 항공전의 신기원을 이루다 몰 크리켓 19 작전(Operation Mole Cricket 19)

베트남전과 제4차 중동전쟁 이후 지대공 미사일은 전투기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 전장에서 맹위를 떨친 구 소련의 지대공 미사일은, 서방 세계 공군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그러나 1982년 레바논 전쟁에서 이스라엘 공군은 치밀한 작전 끝에 구 소련의 신형 지대공 미사일로 무장한 시리아 군의 방공망을 단 몇 시간 만에 파괴하는 기염을 토했다. 한동안 이 작전은 기밀에 부쳐지다가 2002년이 되어서야 공개되었다. '몰 크리켓 19'로 알려진 작전은 현대 항공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01
'죽음의 세 손가락'이라고 불린 SA-6 지대공 미사일은 제4차 중동전쟁 당시 40여 대의 이스라엘 공군 소속 항공기를 격추시켰다.

중동지역에 불어든 평화의 바람

치열했던 제4차 중동전쟁이 끝나고 “세계의 화약고”인 중동 지역에는 평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1979년 캠프 데이비드 (Camp David) 회담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미국의 중재하에 평화협정에 합의하게 된다. 이 때 합의된 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에서 이스라엘은 점령 중인 시나이 반도를 반환하고, 이집트는 그 대가로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의 수에즈 운하 이용을 허락했다. 이 조약으로 인해 이집트는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아랍 국가 중 최초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기타 아랍 국가들은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나 이집트가 빠진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다시 한 번 전쟁을 벌이는 것은 아랍 국가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이스라엘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시리아, 리비아, 알제리도 말로는 연일 이스라엘을 비난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신중함 태도를 보였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아랍 국가들이 머뭇거리는 가운데서도 아라파트 의장이 이끈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만은 아랍 국가들로부터 자금과 무기를 원조받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반복했다. 선조들로부터 이어 받은 국토를 빼앗긴 PLO의 원한은, 이스라엘을 타도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게 했다. 유랑집단인 PLO는 이스라엘과 인접한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에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요르단과 시리아에서는 각국 정부의 통제도 통하지 않는 무장단체로 인식돼 결국, 크고 작은 충돌 끝에 내전이 한창이던 레바논으로 쫓겨났다. 이후 PLO는 레바논을 기지로 삼아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이스라엘을 상대로 200회 이상의 각종 테러를 벌이고, 시리아가 제공한 야포를 이용해 이스라엘 북부에 포격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를 출격시켜 레바논에 위치한 PLO 기지를 폭격했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못했다.

초읽기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1982년 6월 3일, 영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가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인 아부니달 조직에 의해 피격됐다. 이어, 유럽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들도 연쇄적으로 피습됐다. 또한 1981년에는 이스라엘과 PLO를 지원하는 시리아와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다. 1981년 4월 28일, 이스라엘 공군 소속의 F-16 전투기가 레바논 상공에서 두 대의 시리아 군 헬기를 격추시켰다. 이에 대응해 시리아 군은 SA-6 지대공 미사일과 ZSU-23 자주대공포로 무장한 방공여단을 베카 계곡으로 전진 배치했다. 1981년 12월 14일, 이스라엘 정부는 골란고원법을 통과시켜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에 점령된 골란고원을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켰다. 이에 반발한 시리아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그러나 시리아는 강대국들의 만류에 어떠한 군사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PLO의 테러 위협에 레바논에 위치한 PLO 기지를 제거하기 위한 침공 작전을 구상한다. 이스라엘 군은 레바논 침공 작전인 "빅 파인스 작전(Operation Big Pines)"을 준비했다. 이후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침공하기 위해, 네 차레나 국경을 군대를 집결시켰다.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침공 작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빅 파인스 작전은 이후 "갈릴리 평화작전(Operation Peace for Galilee)"으로 작전명이 변경된다.



- 02 이스라엘 군의 스카우트 무인 정찰기는 시리아 군 방공여단을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 03 이스라엘 공군 소속의 F-15 전투기는 고성능의 레이더를 사용해, 원거리에서 시리아 공군의 전투기들을 발견하고 격추시켰다.
- 04 1979년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 회담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미국의 중재하에 평화협정에 합의한다.
- 05 F-4 전투기는 공중전보다는 시리아 군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파괴하는데 주로 사용됐다.
- 06 이룩한 시리아 공군의 전투기들은 속속들이 이스라엘 공군의 E-2C 조기경보기에 탐지됐다.

레바논 침공의 걸림돌이었던 시리아 군의 지대공 미사일

지난 제4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 공군은 아랍 연합군의 지대공 미사일에 큰 피해를 당했다. 개전 첫 날만 30여 대의 항공기가 격추 당했고, 제4차 중동전을 통틀어 90여 대의 항공기가 격추 당했다. 아랍 연합군의 지대공 미사일에 이스라엘 공군은 제4차 중동전쟁 기간 내내 제공권 장악에 많은 제약을 받았고, 이스라엘 군의 지상전마저 차질을 빚었다. 특히 제4차 중동전에 등장한 신형 지대공 미사일 SA-6 게인폴(Gainful)은,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죽음의 세 손가락’이라고 불린 SA-6 지대공 미사일은 제4차 중동전쟁 당시 40여 대의 이스라엘 공군 소속 항공기를 격추시켰다. 이 밖에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는 자주 대공포인 ZSU-23 실카(Shilka)도, 이스라엘 공군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다.

이스라엘 공군의 치밀한 준비

제4차 중동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군은 백여 명의 과학자로 팀을 구성하여 아랍 각국의 방공망을 연구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시리아 군의 방공망은 이스라엘 군의 일순위 정찰 대상이

었다. 전력증강도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미국으로부터 최신예 전투기인 F-15A/B와 F-16A/B가 도입됐고, 조기 경보기인 E-2C도 도입됐다. 또한 이스라엘은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707 여객기를 개조한 EC-707 전자전기를 운용했다. 이 밖에 정찰용 무인항공기도 개발됐다. 레바논 침공에 앞서 이스라엘 공군은 베카 계곡에 위치한



07 이스라엘 공군 소속의 F-16 전투기는 갈릴리 평화 작전 기간 동안 총 44대의 시리아 공군의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시리아 군 방공여단을 제거하기 위한 “몰 크리켓 19 작전(Operation Mole Cricket 19)”을 준비했다. 영어로 땅강아지를 의미하는 몰 크리켓은 시리아 군 방공여단의 지대공미사일 부대를 의미했고, 숫자 19는 배치된 지대공 미사일 부대 수를 의미했다. 이스라엘 공군은 완벽한 작전수행을 위해 네게브 사막의 베카 계곡에 배치된 시리아 군 지대공 미사일 부대의 모형 진지를 만들어 6개월간 공격훈련을 실시했다.



D-day, H-hour

1982년 6월 6일, 이스라엘 군은 레바논 침공 작전인 “갈릴리 평화작전”을 개시했다.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의 엄호하에 300여 대의 이스라엘 육군 전차가 레바논 국경을 넘어 북쪽으로 진격했다. 작전 3일째되던 6월 9일, 이스라엘 공군은 “몰 크리켓 19 작전”을 발동했다. 오후 1시 30분 제1파로 F-15와 F-16 전투기 90여 대가 이륙했다. 이륙한 전투기들은 시리아 공군 전투기와와의 공중전에 대비해 유리한 공역에 자리잡았다. 제2파로 대레이더 미사일인 AGM-78 스탠더드 미사일과 AGM-45 슈라이크 미사일을 탑재한, F-4 전투기와 A-4 공격기 90여 대가 이륙해 베카 계곡으로 향했다. 시리아 군 방공여단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스라엘 군의 마스티프와 스카우트 무인 정찰기에 의해 감시됐다.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의 대규모 출현에 화들짝 놀란 시리아 군 방공여단은 대공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을 작동시켰다. 이를 감지한 F-4 전투기와 A-4 공격기는 오후 3시 50분, 대레이더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지상에서는 이스라엘 육군의 야포와 지대 지미사일이 시리아 군 방공여단을 공격했다. 이스라엘 공군의 출현에 당황한 시리아 공군은 미그(MiG) 21과 23 전투기 100여 대를 긴급 출격시켰다. 이륙한 전투기들은 속속들이 이스라엘 공군의 E-2C 조기경보기에 탐지됐다.

베카 계곡의 공중전

시리아 공군 전투기들의 위치는 실시간으로 지휘 통제소에 보고됐고, 적 전투기들의 정보는 상공에 대기 중인 F-15와 F-16 전투기에 전파됐다. EC-707 전자전기는 시리아 공군의 무선 통신망에 교란을 실시했다. 지상 지휘소의 통제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시리아 공군의 전투기들은 통신이 두절되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공군의 F-15와 F-16 전투기가 달려들었다. F-15 전투기는 고성능의 레이더를 통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7 스파로우로 시리아 공군의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시리아 공군의 전투기들은 상대방 전투기들을 알지도 못한 채 파괴당했다. 오후 4시경 작전을 마친,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들이 귀환하기 시작했다. 작전 개시 1시간 만에 19개의 시리아 군 지대공 미사일 부대가 파괴됐다.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은 재급유와 무장을 장착하고 다시 이륙하기 시작했다. 저녁 무렵 베카 계곡에 증원된 6개의 시리아 군 지대공 미사일 부대가 이스라엘 공군의 공습에 추가적으로 파괴됐다. 또한 이날 하루 동안 이스라엘 공군은 단 한 대의 손실 없이 공중전에서 29대의 시리아 공군 전투기들을 격추시켰다.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08 베카 계곡은 서쪽에 있는 레바논 산맥과 동쪽에 있는 안티레반 산맥 사이에 위치해 레바논 내에서 지리적으로 중요한 전략 요충지이다.

현대 항공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

6월 9일 이후 벌어진 공중전에서도 승리의 여신은 이스라엘 공군의 편이었다. 갈릴리 평화작전 기간 동안 이스라엘 공군은 A-4 공격기 한 대를 시리아 군 방공망에 잃고, 80여 대의 시리아 공군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제공권을 장악한 이스라엘 군은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를 향해 거침없이 진격했다. 반면, 이를 막아야 할 시리아 군은 방공망이 무너져 버려 진격하는 이스라엘 육군을 도저히 막을 수 없었다. 방공망을 벗어난 시리아 육군은 이스라엘 공군의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다급했던 시리아는 구 소련에 지대공 미사일의 원조를 요청했지만, 확전을 두려워 한 구 소련은 이 제안을 거절했고 대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군사 고문단을 급파했다. 미국의 강력한 중재로 6월 10일 오전 6시를 기해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레바논에서의 상호교전을 중지했다. 일년 후, 미국은 군사고문단을 파견해 이스라엘 군의 작전을 연구해 걸프전에 적용,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09

시리아 군은 SA-6 지대공 미사일과 ZSU-23 자주대공포로 무장한 방공여단을 베카 계곡으로 전진 배치시켰다.

2011 청춘을 감동시키는 키워드

필자는 자본주의 4.0시대를 맞은 국내의 2011년 주요 리더십 이슈는 소통, 베품과 나눔, 원칙, 신뢰였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교수와 박경철 원장의 청춘콘서트, 법륜 스님과 연예인 김제동, 배우 김여진이 기획한 청춘콘서트 2.0이 성황리에 진행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작년에 원칙과 신뢰, 정직은 안철수, 박근혜, 박원순의 키워드가 되었고 이런 리더십 덕목들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강조되었다.

작년 12월 초 KBS 1TV에서 특별기획으로 방영한 '사회적 자본'에 관한 프로그램도 신뢰, 소통, 협력을 다루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공생발전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면 신문광고를 하고 경주 최 부장집 이야기를 했다. 1만 석 이상의 재산은 모으지 않으며, 찾아오는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고, 흥년에는 다른 사람의 눈발을 사들이지 않았기에 우리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부를 이어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베품과 나눔의 문화를 갖고 있었고 그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는 시대를 보내고 있다.

동전의 양면 같은 한민족의 강점 살려야

2012년의 리더십 전망은 2011년 후반과 동일하게 소통, 베품과 나눔, 신뢰와 같은 주요 덕목들이 강조될 것 같다. 작년 가을부터 이런 주제에 대한 특강 요청이 평소의 2~3배가 되고 있고 반응이 폭발적이다. 물론 차이가 있다면 단순하게 추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실제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심화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대담이나 여러 모양의 소통과정을 통해 뜻을 모은 청춘들이 함께 의사를 표명하는 풀뿌리 운동이 더 확산될 것이다.

금년에는 소통을 잘 하는 개인과 조직이 성공하는 정치인이 되고 기업이 될 것이다.

리더십의 뉴패러다임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발전 단계를 빗대어 2010년대를 자본주의 4.0시대라고 한다. 1900년대의 자유방임적인 고전 자본주의가 1.0시대, 1930년대 정부 역할이 강조된 수정 자본주의가 2.0시대, 1980년대 시장 자율을 강조한 신 자유주의가 3.0시대라고 한다.

작년부터 거론된 자본주의 4.0시대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이며 사회적 기업이 강조되고 나눔과 베품에 대한 기대와 인식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재능 기부, 프로보노 정신(라틴어 pro bono publico의 줄임말: 공익을 위하여) 등이 대중에게 알려지고 관련 서적들이 서점에 급증하게 될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본래 한국인은 활력이 넘쳐나는 사람들이다. 중국 고문헌에도 한국 민족은 가무에 능하고 활을 잘 쏘며 길을 걸을 때 빨리 걷거나 뛰어다닌다고 했다. 오늘날 외국인들의 눈에도 한국인은 '신바람과 빨리빨리'의 나라, 이사를 가장 자주 하는 활력에 가득 찬 민족으로 보인다.

이런 넘쳐나는 활력이 승부욕을 강화시키고, 감정이 격해지게 하며, 행동을 과격하게 만든다. 결국 소통을 잘 하지 못하고 부딪치고 미워하거나 서로 긴장된 삶을 사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심지어는 갈등하고, 한을 품거나 싸우다 다치고, 소송까지 하며 그 미움과 한을 대대로 물려간다. 우리나라 사회 갈등 지수가 OECD 27개국 중에서 24위이고 소송 횟수도 일본보다 5배나 많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소통으로 인한 큰 국가적 비용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동전의 양면처럼 한국인의 활력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자본주의 4.0시대인 임진년 2012년, 한국의 경제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많은 사회적 기업의 창립을 도와주고 임직원들을 고용하며 원칙 중심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베품과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행하기를 희망한다. **AF**

LEADERSHIP



공군 IN

기획특집 Good to Great_더 새롭게, 더 스마트하게
신형 복제, 이렇게 입고 관리하세요!
공군 60년 복제사_어제의 옷장을 열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공군애호단체 대표들의 신년축하메시지

참모총장 스케치 강하고 믿음직한 선진 공군! 우리의 희망입니다

AIR FORCE MONTHLY 2012. 01. NEWS

생각하는 그림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는 나무

Good to Great 더 새롭게, 더 스마트하게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보이는 건 매우 중요하다.



01

동약정복은 타이를 맬 수 있도록 셔츠 스타일로 개선됐다.
브이넥 스웨터(간부용)로 스타일리시한 따스함을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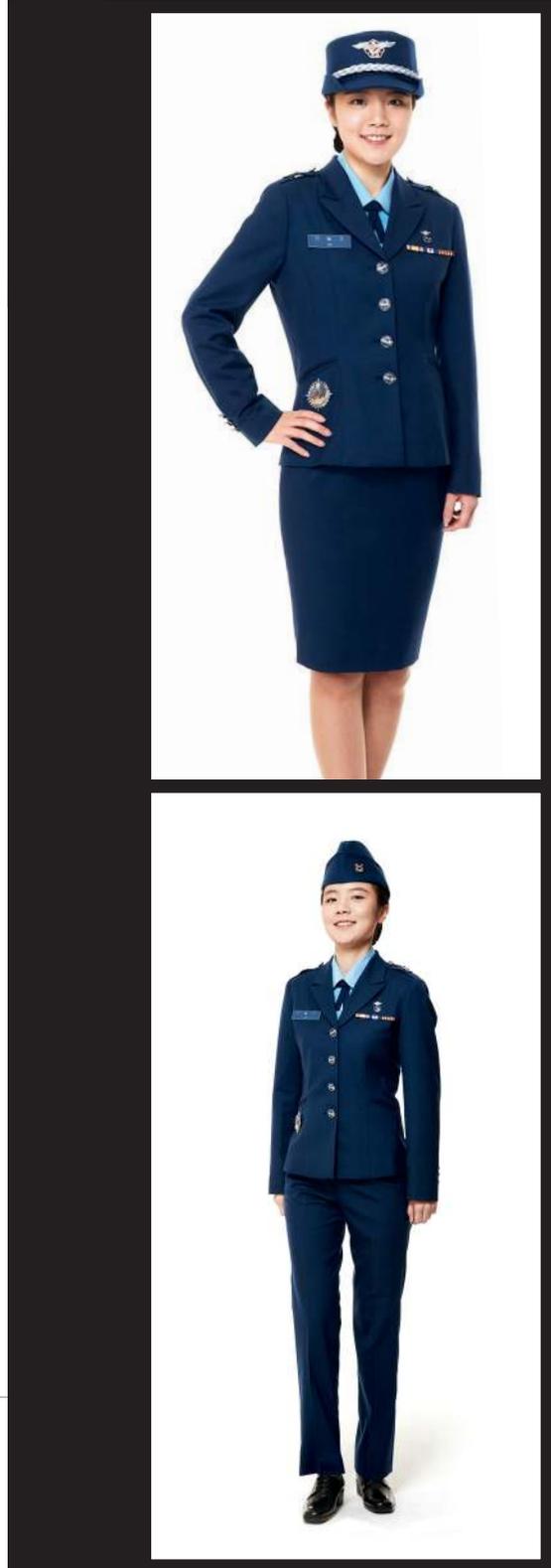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이번 복제 개선의 가장 돋보이는
체인지업은 게리스모!





02

클래식한 느낌의 더블버튼 반코트,
남색 머플러(보급시기 미정)도 코트와
부드럽게 매치된다.
두 아이템 모두 병사용.



03

여군 정복에 바지가 새로 추가됐다.
기존 정모와 계리슨모, 치마와 바지를 바꿔가며
변화를 줄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이다.

연하늘색과 남색의 시원한 대비가 돋보이는 하악정복.
공식행사 때 타이를 매치하면 더욱 단정하고 고급스럽다.





05_ 하약정복을 입는 시즌에도 쌀쌀한 아침저녁에는 브이넥 스웨터를 덧입을 수 있다.



6-2

6-3

06

- 6-1. 위장능력이 뛰어난 디지털 무늬의 신형 전투복. 신축성과 향균·방취 기능이 크게 좋아졌다.
- 6-2. 겨울철 혹한의 주기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정비사들을 위한 정비파카.
- 6-3. 일명 흑복이라 불리는 한병 특수임무복.



왼쪽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공군 신형 복제의 멋을 만끽할 수 있는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Good to Great 신형 복제, 이렇게 입고 관리하세요!

게리슨모 잘 쓰는 법

- 1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쓰기
- 2 착용 후에는 바로 착용됐는지 확인하기!

게리슨모 세탁법

반드시 드라이클리닝을 권장합니다. 손빨래시 울샴푸로 부드럽게 세탁하세요.



약정복 잘 입는 법

일상적인 근무 때에는 편의성과 능률성을 위해 타이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넥타이 미착용 시.

- 1 옷 깃 맨 위 단추를 항상 열어둡니다.
- 2 동절기 실외에서는 첫 단추를 채울 수 있습니다.
- 3 옷걸이에 약정복을 보관할 때, 옷깃형태 유지를 위해 첫 단추와 둘째단추는 채우기!

넥타이 착용 시. (공식행사나 외박·휴가)

넥타이 끝이 요대 버클을 살짝 가리는 정도가 적합하다.

약정복 세탁법

하약정복

하정복, 하약복은 고급스런 가는실의 모 50%/폴리에스터 50%의 싸이로필(coolwool)을 사용했습니다. 싸이로필 원단은 순모에 가까운 촉감뿐만이 아니라, 통풍성이 우수해 모시 같은 느낌을 줍니다. 또한 우수한 구김 방지기능으로 세탁 후 별도의 다림질 없이 바로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세탁도 가능하나, 드라이클리닝을 권장합니다.

동약정복

모 70%/폴리에스터 30%의 세번수 고급 원사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광택감과 부드러운 촉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신소재 옥수수섬유를 사용해 자연신축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매우 편안한 착용감을 줍니다. 모함량이 70%로 드라이클리닝을 권장합니다.

스웨터 잘 입는 법

스웨터 착용으로 겨울철 에너지 절약에 공군이 앞장섭니다.

- 1 약정복 옷깃과 스웨터 브이넥 선이 잘 맞도록 입기!
- 2 스웨터 아랫단은 안으로 한 번 접고, 소매단은 밖으로 한 번 접어 입기!
- 3 스웨터 착용 시에는 약정복 상의의 부착물과 계급장은 제거 가능!
- 4 스웨터는 동약정복은 물론, 5월이나 9월 하약정복을 착용하는 환절기에도 착용 가능합니다.

스웨터 세탁법

모 50%, 아크릴 50%로 반드시 드라이클리닝해야 합니다. 옷걸이에 걸어 보관하는 것보다는 서랍에 보관하는 것이 늘어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구김 시에는 스타밍다리미를 사용하세요!

신형전투복 잘 입는 법

- 1 신형전투복 상의는 하의에 넣지 않고, 내어입는다!
- 2 동절기 및 작전 시에는 목 보호를 위해 옷깃을 세울 수 있다.
- 3 소매목에 벨크로가 부착돼 착용자의 체형에 맞게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 4 하의에 바짓단 조임 고무줄이 내장되어 있어 현행 고무링은 불필요함!

신형전투복 세탁법

물세탁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건조 및 다림질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염소표 백제 사용도 마찬가지구요. 세탁 시에는 특기마크, 명찰 등의 부착물을 떼고 구입시 지급됐던 벨크로 커버를 붙인 후 세탁해야 이물질에 의한 접착력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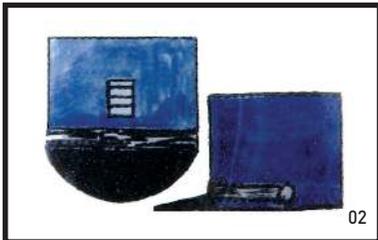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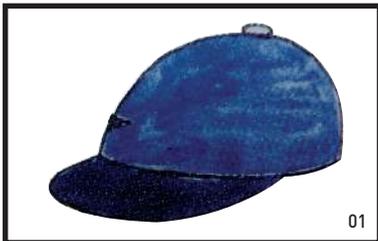
공군 60년 복제사 어제의 옷장을 열다

지난 세월의
 멋과 혼을 간직한 공군의 옷장속은??

‘공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얼마 전 「공군」지 400호 특집에서 여대생 200명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여대생들이 하늘, 비행기와 더불어 ‘파란 옷’과 ‘빨간 마후라’를 공군의 상징으로 꼽으며, 공군의 이미지를 ‘깔끔함과 고급스러움’으로 정의했다. 군복이란 무릇 전투에서의 실용성 못지않게 명예와 위용을 드러내는 심미성도 충족돼야 하는 법!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공군의 이미지가 이러한 것을 보면, 가히 공군을 ‘軍의 패셔니스타’라 불러도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공군은 언제부터 이렇게 옷을 잘 입었던 것일까? 지난 세월의 멋과 혼을 간직한 공군의 옷장 속을 들여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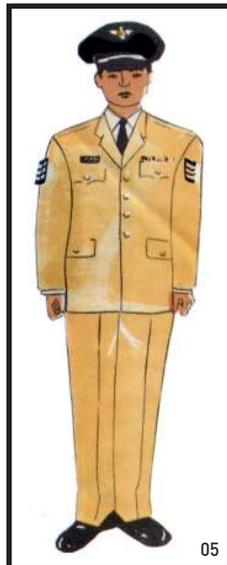
- 01_ 병사 정모(1949년)
- 02_ 병사(원주형) 정모(1952~1953년)
- 03_ 병사 정모(1963년)
- 04_ 병사 동정복(1967년)
- 05_ 병사 하정복(1967년)
- 06_ 병사 외투(1962년)
- 07_ 병사 외투(1949~1967년)



시작은 초라했지만...

1949년 10월 1일, 육군항공대로부터 독립하여 공군이 창설되면서 공군 고유의 복제가 처음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이는 간부들에 국한된 것이었고, 병사들의 복장은 이후로도 오랜 기간 동안 육군과 큰 차이가 없었다. 게다가 6·25로 인해 국가 전체가 심각한 빈곤상태에 이르렀으니, 군복을 만들 돈이 없어 미군의 군복을 얻어다 입는데 만족해야만 했다. 이는 공군뿐만 아니라 당시 육군, 해군 모두에게 공통된 처지였다. 입는 것보다는 먹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공군은 그토록 딱딱한 와중에도 남색모직 동복과 모자만은 별도로 만들어 착용, 타군과의 차별성을 두었다. 미군 복제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조종사들의 조종복도 어디를 가나 눈에 띄는 특별한 복장으로 제정해 창군초기부터 자리매김했다. 공군 고유의 멋은 그토록 어려운 시절부터 움트고 있었나보다.



공군의 상징 하나, ‘파란 옷’

요즘 공군병사들이 지급받는 복장은 크게 전투복, 동약정복, 하약정복 이렇게 세 종류이다. 반면 간부들에게는 임관식이나 진급신고 등 특별한 경우에 착용하는 정복(동복과 하복으로 구분)도 지급된다. 그런데 예전에는 병사들도 정복을 입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병사용 정복은 동절기용 남색, 하절기용 은회색이 있었으며, 모자 또한 지금의 약모 이외에 정복착용 시에는 정모를 썼다. 정모에는 계급장 대신 병사용 모표가 부착됐는데, 공군을 상징하는 보라매를 모표로 디자인한 것이었다.(장교용의 경우, 무궁화 화환의 유무로 구별)

병사용 정복은 1972년에 폐지되었다. 실제 입을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 큰 이유였을 것이다. 또한 당시 군대에서의 신분분류가 ‘병+부사관’ 對 ‘장교’의 개념에서 점차 ‘병’ 對 ‘장교+부사관’의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복장에서도 통폐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남색 약복은 창군초기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지만, 1963년까지는 남색 넥타이를, 이후 1987년까지는 넥타이 대신 파란색 머플러를 착용하다가 현재까지는 약복만 착용하는 것으로 변모해 왔다.

겨울철에는 정복이나 약복 위에 외투를 입어 추위도 막고 멋도 살렸었다. 장교용은 남색에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긴 코트였고, 병사(士兵)용은 흑갈색으로 1967년까지는 아래로 내려오는 긴 코트였다가 이후에는 무릎과 허리의 중간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반코트로 바뀌었다. 이후 1971년에는 다시 장교와 병사 공용으로 장교용 외투를 착용해 오다가, 1979년 공군복제로 병사점퍼(지금의 약복점퍼)를 제정하면서 병사용 외투를 폐지하였다.

옷과 더불어 모자도 많은 변천을 겪어 왔다. 병사들은 창군초기에는 남색 모직에 원주형의 모자에 계급장이 부착된 모자로 지금의 약모와 비슷한 모자를 썼다. 6·25가 한창이던 1952~1953년 사이에는 다소 특이한 원통형의 모자가 사용됐고, 이후에는 지금의 간부 정모와 유사한 정모를 정복이나 약복에 착용했다. 1972년에 병사용 정복이 폐지된 이후에도 한동안 병사들은 약복을 입을 때 정모를 착용했으나, 요즘 병사들은 정모를 지급받지 않고 약모만 착용하고 있다.

전투복은 1971년까지는 아회색, '71년부터는 연청록색으로 지금과는 달리 얼룩무늬가 없는 단색이었고 상의를 하의 밖으로 빼입는 형태였다. 이는 전군 공통이었는데, 공군은 1971년 7월 30일부터 전투복에 남색 전투모와 아청색 머플러(동절기만 착용)를 착용하여 타군과는 차별되는 공군만의 개성을 살렸다. 1975년부터는 지금처럼 전투복 상의를 하의에 넣어 입는 것으로 개정됐고, 1990년부터는 북한군복과의 차별화를 통한 피아식별과 위장효과를 위해 얼룩무늬를 전투복과 전투모에 집어넣었다. 70~80년대에는 뽀뽀하게 줄을 세운 연청록 군복에 밝은 파란빛 머플러를 목에 두른 공군 병사가 휴가를 나가면 여성들에게 인기가 대단했다고 한다. 타군 병사들이 부러워했을 이 파란 머플러는 1987년도에 폐지되었다.

파란색이라고 다 같은 파란색이 아니다!

공군 피복의 상징인 ‘파란색’이 한 가지 색이 아니라, 네 가지 색으로 이뤄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옆의 표를 보면 색깔에 따라 각각 쓰임새를 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군의 각종 군복, 기(旗), 표지장 등의 색상을 표준화해 통일함으로써 공군 고유의 멋과 품위를 살리기 위하여 위함이었다. 아마도 공군복제에 쓰이는 ‘파란색’을 과학적으로 표준화한 것이 일반대중에게 공군의 이미지를 깊이 각인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병사용 모표(1996년 이전)



장병용 모표(1996년 이후)

병사 동약정복 변천사



(1952~1963년) (1963~1987년) (1987~2011년)

색 명	품 목	색 상
연하늘색	하약정복 상의	[Light Blue Box]
	와이셔츠	
아청색	장성표지기	[Medium Blue Box]
	공군부대기	
	성판표지	
	지휘관근무기념장	
청 색	계급장	[Dark Blue Box]
	장기근속기념장	
	병과휘장	
남 색	동 복	[Dark Blue Box]
	하복하의	
	넥타이	
	명 찰	



▲ 故 앙드레 김이 디자인한 빨간 마후라

공군의 상징 물, '빨간 마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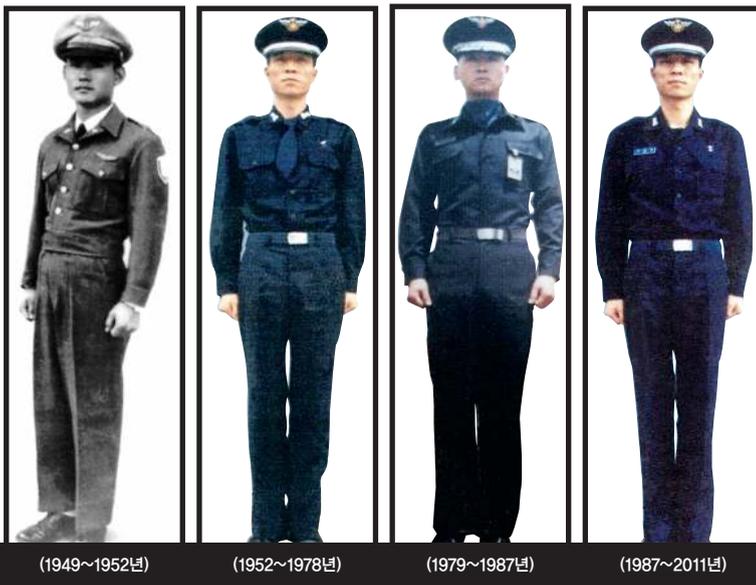
공군의 상징, '빨간 마후라'는 그 유래에 대해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51년 강릉기지 초대사령관이었던 김영환 장군과 관련된 것이다. 2006년도 「공군」지 3월호에 게재된 '빨간 마후라의 표상, 김영환 장군'이라는 글에서는 사령관이 된 김영환 장군이 우연히 형수에게 부탁해 빨간색 치맛감으로 머플러를 만들어 착용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그는 전부터 독일 공군 스타일의 모자와 장화를 개성 있게 착용하고 다녀 '멋쟁이'로 통했는데, 그를 선망하던 후배조종사들이 너도 나도 빨간 마후라를 따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쟁의 포화가 가장 짙었던 그 시절에도 공군 조종사들은 빨간 마후라로 공군의 멋과 위용을 만방에 떨쳤다.

이후 당대 톱스타인 신영균과 최무룡이 출연한 영화 '빨간 마후라' (1964년 작)가 큰 인기를 끌면서 '빨간 마후라'는 일반대중에게까지 공군의 상징으로 각인되었고, 영화 주제곡인 '빨간 마후라'라는 노래는 아예 공군의 대표적인 군가가 되었다.

한편 공군은 지난 2008년 7월 3일을 '조종사의 날'로 선포했는데, 이를 기념하여 세계적인 디자이너 故 앙드레 김이 디자인한 빨간 마후라를 조종사들에게 보급하였다. 故 앙드레 김이 디자인한 빨간 마후라는 가로 35cm, 세로 143cm 실크 소재로 앞면은 진한 빨간 색, 뒷면은 진한 주황색으로 되어 있으며 앙드레 김 고유의 문양과 '대한민국 공군'이란 글귀를 진한 주황색으로 앞면에 새긴 명품버전의 빨간 마후라이다. 빨간 마후라는 이전에는 전투복이나 약복 차림에도 함께 착용했으나, 조종사의 신분노출로 인한 위험상황을 우려하여 1985년부터는 조종복을 입을 때에만 빨간 마후라를 착용하도록 정했다.

빨간 마후라와 짝을 이루는 조종복은 공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군복이자, 모든 군 복제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옷이라 할 수 있다. 창군 당시에는 마땅히 조종복이라 할 것이 따로 없어, 근무복에 정모와 단화 차림으로 비행을 했다. 그러다가 6·25전쟁 중, 미군에서 원조받은 롤오버(상·하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옷) 형태의 조종복을 착용하였다. 롤오버 형태는 좁은 조종석 안에서도 조종사가 편하게 움직이고, 비상시에 빨리 입고 벗게 하기 위한 조종복 특유의 형태이다. 1960년대 들어와서야 마침내 조종복을 미 공군 조종복과 유사한 제식으로 국산화하기 시작했다. 최초의 국산 조종복은 지금과 달리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동·하복 모두 국방색이지만, 동복에는 주황색 나일론 소재의 내피가 붙어 있었다. 1978년부터는 동·하복 구분 없이 단일 제식이 되었고, 1984년부터는 이전의 면, 나일론, 모(毛)합성섬유에서 최첨단 불연(不燃)소재인 '노맥스' 소재를 사용해 기능적인 면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항공사고시 화재로부터 조종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조종장갑도 같은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조종헬멧은 조종사 개개인의 머리 형태에 꼭 맞게 맞춤 제작하여, 사고시 두부 손상을 최소화시켰다. 한편 조종복에는 철제계급장을 달지 않는데, 이는 활주로 위에 떨어진 이물질(F.O : Foreign Object)로 인한 항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조종복은 2002년에 제정된 것이다. **AF**

장교 동약정복 변천사



(1949~1952년)

(1952~1978년)

(1979~1987년)

(1987~2011년)

전투복 변천사



(1951~1956년)

(1956~1971년)

(1971~1975년)

(1975~1990년)

아무리 멋쟁이
공군이라도 군복은 거기서 거기라고?
지금부터 소개할 공군 복제 속의 '레어템' 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조금은 사라질 것이다.



1. 조종사의 숨겨진 감성?... '주황색 조종복'

조종복의 상징인 국방색 이외에도 다른 색 조종복이 있었다? 긴가민가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2005년 공군본부에서 발간한 '공군복제사(p.160)'에는 '한편 이 시기(1978년 7월)를 전후하여 일부 조종사들이 주황색 비행복을 착용하였으나, 정확한 근거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사진만을 수록하였다' 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본문 옆에는 문제의 '주황색 비행복' 사진도 함께 게재되어 있는데, 과연 이 톡톡 튀는 주황색 조종복은 언제, 누가, 어떤 용도로 입었는지 생각할수록 궁금해진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공군」지 담당자에게 제보해주시길...



2. 기지마다 개성 있게 '기지모'

'기지모'란 비행기지마다 특색 있게 제작하여 썼던 단체모자 같은 것이다. 창군 당시부터 전 장병이 영내에서 착용하던 기지모는 처음엔 국방색 전투모였는데, 1973년부터 모직이나 면소재로 하되 색상은 비행기지별로 정하도록 하였다. 1999년 체면모가 제정되면서, 기지모는 일선대대 조종사만이 '비행대대모'로 제정하여 착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지금은 볼 수 없어 아쉽지만, 과연 '그 시절에 우리부대 기지모는 어떤 색깔이었을까?' 한 번쯤 상상해보는 공군장병들도 있을 것이다.



3. 마후라와 조끼의 스마트한 만남 '조끼형 빨간 마후라'

앞서 언급했듯이 '빨간 마후라'는 공군 조종사의 특별한 상징이다. 멋도 살리고, 겨울철 찬 바람으로부터 목도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마후라인데, 망명한 활주로에 붙어 닥치는 칼바람을 막기엔 머물러만으론 부족할 때가 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조종사용 '조끼형 빨간 마후라'이다. 최초엔 동·하복 구분되어 있던 조종복이 1978년부터 단일화되었는데, 아무래도 겨울철에 방한효과가 떨어져서 고안하게 되었을 것이라 짐작해본다. 이 조끼형 빨간 마후라는 1982년 2월에 제정되어 멋과 보온성을 살리는 조종사들의 겨울 필수품으로 지금까지도 널리 애용되고 있다. 조종복이 아닌 사복에 매치해도 웬지 잘 어울릴 것만 같은 '완소(완전 소중함)' 군복이다.



4. 활주로 위의 미친 존재감 '항공기유도복'

'항공기유도복'은 안전한 항공기 유도를 위해 활주로 위에서 조종사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정비사들이 착용하는 복장이다. 성공적인 임무완수를 위해서는 어떤 시정조건에서도 조종사의 눈에 잘 띄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최초엔 적색 천에 두 줄의 형광테이프를 부착한 조끼형이었지만, 이 정도로 존재감이 부족했나보다. 1987년에 새로 제정된 항공기유도복은 노란색과 검은색의 큼직한 마름모꼴들이 전체적으로 직조를 이루고 있는 점퍼 형태인데, 사진으로 보아도 군대에서 입는 옷치고 이보다 더 화려할 순 없다. 아무리 안개가 자욱해도, 먹구름이 몰려와도... 안 그래도 시력 좋은 조종사들에게 이 항공기유도복을 입은 정비사의 모습은 그야말로 '미친 존재감' 그 자체로 다가올 듯하다.

공군애호단체 대표들의 신년축하메시지

I ♥ Air Force !!

ROKAFIS



이 중근 | ROKAFIS(공군인터넷전우회) 회장,
(주)부영 회장, 부사후 16기

01 로카피스(ROKAFIS)는 2000년 5월 21일, 공군을 사랑하는 회원들이 창립한 단체입니다. 현재는 16,000명의 회원들이 창립 이념인 “모군사랑, 사회봉사, 예비역 친목” 정신으로 전국에 14개의 지역지부를 두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오지 부대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위문품 전달 등 후배 장병들을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로카피스 회원 모두는 모군인 공군의 발전과 예비역의 단합과 친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02 지금까지 했던 활동과 더불어, 앞으로는 자매결연 부대 수를 더 추가할 생각입니다. 더 많은 공군장병들을 위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현역장병의 자녀 중 모범 자녀를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각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한 자연보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로카피스 회원 모두는 공군의 발전과 전우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3 먼저 영공방위수호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공군장병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2년, 임진년은 용의 해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군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용처럼 비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무궁한 발전과 장병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항공소년단



박재구
항공소년단 제3대 사무총장,
예비역 준장, 공사 28기

01 저희 한국항공소년단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에 대한 도전정신을 함양하고, 꿈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 2004년 8월 창설된 단체입니다. 한국항공소년단은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지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장차 항공우주분야의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설립목적입니다. 저희 한국항공소년단은 서울연맹을 비롯해, 9개 지방연맹을 두고 있으며 각 지방연맹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푸르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라매, 고등학생 대원으로 구성된 송골매,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독수리와 가족 단원으로 이루어진 비둘기 등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립된 지는 얼마 안됐지만 공군의 전문적인 지원과 방산업체 그리고 개인후원에 힘입어 다양한 항공우주과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형항공기 대회 및 항공우주캠프 등 여러 행사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단체의 '대표브랜드'로 성장할 항공소년단을 기대해주시요.

02 올해는 '항공소년단 승천의 해'입니다. 그동안 펼치지 못했던 나라를 할 짝 펴, 창공을 날아오르려 합니다. 그 일환으로 농·산·어촌 및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항공과학교실' 운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들에게도 항공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려 합니다. 또한 국제교류행사인 국제항공소년단 캠프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캠프에 참가하는 항공관련 교육기관의 국가와 인원을 더욱 확대해 활발할 국제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03 새해에는 더욱 국민 모두의 사랑을 받는 건강한 공군, 생동감 넘치는 공군, 새롭게 도약하는 공군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항공소년단은 공군장병 여러분들을 늘 응원하며, 적극적으로 후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원하는 모든 것 다 이루어지는 따뜻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공군장병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공/통/질/문

1. 우리 단체는…!
2. 2012년의 활동계획?
3. 새해를 맞아 공군장병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창공클럽



고운기 | 창공클럽 회장, 시인,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01 창공클럽은 공군을 사랑하는 문인들의 모임입니다. 6·25 당시 창공구락부로 출발했던 문인들의 공군 사랑의 연장선상이지요. 그동안 격오지 방문 병영 체험, 시낭송회, 공군 주요 행사 찬조 출연 등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군을 소재로 한 시집, 소설 등이 나오기도 했지요. 대표적인 작품으로 차인숙 작가의 <리턴 투 베이스>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02 격오지 방문 행사 등 그동안 해오던 행사를 이어나갑니다. 여기에도 병영의 글쓰기 및 독서 활동을 단위별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공군군악대의 연주회에는 시 낭송 등으로 찬조 출연할 계획입니다.

03 국가안보는 언제나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그 일선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근무하는 장병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바라는 바 목표를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Jet Wings



김민정 | 국민조종사 모임 Jet Wings 대표,
現 Universal English Center 지사장

01 국민조종사는 대한민국 공군이 2년마다 개최하는 행사로 대한민국 영공을 방위하는 공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산항공기 T-50, KA-1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입니다. 우리 Jet Wings는 2007년 제1기 국민조종사 선발에 지원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모임으로, 현재 하늘과 비행, 공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회원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2 Jet Wings 자체적인 활동과 더불어, 2013년 제4기 국민조종사 선발행사에 큰 힘을 보태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활동으로는 비행단 견학, 스페이스 챌린지 행사참석, 안보현장 견학, 항공사 견학, 초경량항공기(Ultra light Machine) 비행 체험, 오산비행장 에어쇼 관람, 세미나 참석, 공군군악대 정기연주회 관람, 양로원 봉사, 전시회 관람, 자전거 기행, 체육대회 등이 있습니다. 항시적으로는 공군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구요.

03 다사다난했던 신묘년이 벌써 저물고, 임진년의 새아침이 힘차게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공군도 용이 하늘로 승천하듯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의 위상을 드높이길 기원합니다.

강하고 믿음직한 선진 공군! 우리의 희망입니다

친애하는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1년 한해가 저물고 이제 희망 가득한 용의 해 임진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엄동설한의 거친 바람을 이겨내고 푸른 하늘과 산간벽지에서 영공방위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 장병과 군무원, 그리고 이역만리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공군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올 한해에도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급변기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는 우리의 오랜 벗이자 동반자인 미 7공군 장병을 비롯한 주한 미군 장병들에게도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믿음직한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 우리들의 가슴엔 여전히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 생긴 깊은 상처가 남아있고, 비록 군은 달라도 먼저 떠난 전우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볼처럼 살아있으며, 그동안 적의 도발에 대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강한 전사가 되고자 진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에게 공군에 대한 신뢰를 전할 수 있었고, 공군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나은 미래 건설과 「강하고 믿음직한 선진 공군」 육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지속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현 상황 관련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내부 불만과 위기를 외부로 전환시키기 위해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동안 철저히 부심하면서 키워온 강철 같은 신념과 대적우위의 군사역량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적이 언제 어디에서 도발하더라도 현장 지휘관은 가용전력을 최대한 활용해 최단시간내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까지 일격을 가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추가도발 의지를 차단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추진과 합동성 강화에 지속적으로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요전력 획득사업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이에 만족하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신규 첨단 무기체계 확보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무한한 사명감을 갖고 전력투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미래 국방의 주역으로서 새로운 군사지식과 전략을 공군 실정에 맞게 적용·발전시키고, 합동성 강화와 국방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공군의 비전인 <연합·합동 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군> 건설에 매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정책을 뒷받침해야 하는 군의 책무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2012년은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많아 정부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3월에 국가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국제행사인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우리 공군은 어느 때보다도 행사지원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성공적인 국가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대통령 연속 선거로 인하여 사회 갈등과 불신의 분위기가 팽배할 가능성이 있기에 모든 공군인들은 의연한 자세로 오로지 기본임무에 충실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교육의 도장인 우리 군이 국가 정통성 수호의 밑바탕임을 명심하고, 장병들의 국가관·대적관·안보관 확립은 물론이고,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공군인들이 전역 후 모범된 사회일원으로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 격변기 상황에서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유지가 군인에게 부여된 기본임무이듯이 공군의 밝은 미래 건설을 향한 노력과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 모습 역시 공군인 모두에게 부여된 중요한 과업인 만큼 앞으로 한해 동안 어느 곳이든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주인이(隨處作主) 되겠다는 마음을 견지하는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성공한다는 신념을 갖고(有志竟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끝으로, 항상 웃음꽃 만발한 부대를 만들고, 공군인 모두가 자부심으로 충만한 가운데 임진년 새해에도 전 장병과 군무원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2012년 1월 1일

공군 참모총장 대장 박종현

공군지휘관회의 개최

참모총장은 12월 8일, 공군본부에서 공군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지난해 북한의 도발로 모든 요원들이 최고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나 이제껏 수립한 방책에 대한 대응태세가 지금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여건이 당시 상황과 상당 부분 달라졌기 때문에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관련부서 요원들이 다시 한번 보완해 주길 바란다.”면서 대비태세 확립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비행사고로 순직한 조종사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며, 앞으로 무위의 전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관부터 말단장병에 이르기까지 비행사고 예방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궁> 개발완료 보고회 참석

참모총장은 12월 15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최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 개발완료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방공포병 장병들은 일격필추의 신념과 적의 어떠한 공중도발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대적우위의 자신감을 갖게 되리라 확신한다.”며, “<천궁>은 공군작전의 핵심인 항공작전과 더불어 방공포병 작전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국가적으로는 국방과학 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선도하고 경쟁력을 갖춘 방위산업의 쾌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美 공군참모총장 접견

참모총장은 12월 23일, 방한 중인 슈왈츠(Norton A. Schwartz) 美 공군참모총장 일행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참모총장은 “사막의 폭풍작전 등 많은 참전 경험을 축적한 美 공군과의 협력을 통해 한·미 연합전투수행능력을 더욱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IR FORCE MONTHLY

2012. 01. NEWS

북한 동향 예의주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

영공방위 ‘한치의 빈틈도 없다’

김정일 사망으로 전군 비상경계태세가 발령된 가운데 공군의 F-15K 전투기가 전투초계임무를 위해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공군은 김정일 사망직후 대북 정보감시태세와 비상대기 및 기지경계태세를 강화하였다.



조종사 중의 조종사, 창공의 MVP

2011년 최우수 조종사 ‘Top Gun’ 신건우 소령



공군 최고의 조종사를 일컫는 ‘올해의 탑건 (Top Gun)’에 제11전투비행단 122전투비행대대 소속 신건우 소령(38세, 공사 45기, 주기종 F-15K)이 선발됐다. 탑건은 보라매공중사격대회 결과를 포함해 지난 1년간 모든 임무수행 분야를 아울러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조종사를 일컫는 명칭으로 ‘조종사 중의 조종사’, ‘창공의 MVP’를 의미한다.

올해 탑건으로 선발된 신 소령은 이 10가지 필수요소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861.2점을 얻어 참가자 중 최고 득점을 기록했다.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사격결과를 반영하는 ‘사격능력 평가’ 분야에서는 140점 만점에 138.6점(1,000점 만점 기준 990점)을 받아 ‘2011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F-15K 기종별 사격 최우수 조종사로 선발되는 영예를 동시에 안았다. 신 소령이 기록한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사격 점수는 역대 최고점이다.

제3훈련비행단 213비행교육대대, 19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무사고 비행의 ‘신화’를 이어가다!

제3훈련비행단 213비행교육대대(이하 ‘3훈비 213대대’)가 ‘19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의 쾌



거를 이룩했다. 기록은 12월 13일(화) 오전 대대장 김재욱 중령(42세, 공사 40기)과 김시현 중위(진)(22세, 공사 59기)이 탑승한 KT-1이 임무를 마치

고 활주로에 안착하면서 달성되었다.

지난 1983년 8월 20일부터 올해 12월 13일까지 만 28년 4개월에 걸쳐 수립된 ‘19만 시간 무사고’는 1949년 10월 1일 공군이 창군된 이래 단일대대 무사고 비행기록으로는 최초이자 최장기록이다. 3훈비 213대대는 ‘93년 4월 9일 8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하면서 10비 101대대와 15비 237대대가 보유하고 있던 7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넘어섰고, 이후 무려 18년간이나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이 시간에도 213대대에서는 새로운 신화를 써나가고 있는 셈이다.

213대대가 ‘19만 시간 무사고’의 신화를 수립하는 동안 하늘을 누빈 거리는 무려 8,208만에 달한다. 지구 둘레를 2,048바퀴 돌 수 있고, 지구와 달 사이를 107회나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이다. 특히, 213대대는 2004년 5월부터는 최초의 국산훈련기 KT-1으로 기종을 전환하여 총 402명의 조종사를 배출하였으며, KT-1의 우수한 안전성을 바탕으로 3만 8천여 시간을 무사고로 비행해 이번 대기록 달성에 힘을 보탤다.

군수사령부,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 표창 수상

대한민국 영공방위는 최상의 군수지원으로부터 시작!



군수사령부는 지난 12월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주관 ‘제37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6시그마혁신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지식경제부가 국가 경쟁력·생산성 제고를 위해 6시그마

혁신·인재개발·녹색경영 등 7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하는 행사로, 군수사령부는 6시그마혁신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해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6시그마란 업무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품질불량률을 최소화하는 선진경영기법으로, 1백만 개당 불량품이 3.4개 수준이 되었을 때 통상 6시그마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에 군수사령부가 수상하게 되는 6시그마혁신분야 국가품질상은 경영자의 리더십과 전략, 인프라와 지식관리, 고객만족 실천계획, 최근 경영성과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경영전반의 프로세스 혁신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처럼 단위부대인 군수사령부가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것은 전군에서 최초이다.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는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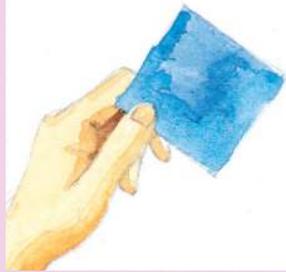


오늘은 유태인들 사이에 전해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한가운데에 특이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슬픈 일이 있으면 나뭇가지에 자신의 슬픔을 걸어놓는다고 해서 이 나무는 '슬픔의 나무' 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사는 동안 슬한 불행을 겪어 견딜 수 없는 슬픔의 늪에 빠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천사가 그를 슬픔의 나무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슬픔을 벗어서 나뭇가지에 걸어놓으라고 한 다음 말했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여기에 내려놓으세요. 대신 이 나무를 한 바퀴 둘러본 뒤 다른 사람이 걸어놓은 것을 대신 하나 가지고 가세요. 그것이 여기에서의 규칙이에요.”

그는 천사의 안내를 받으며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나무에 무성하게 열린 잎사귀들처럼 많은 이들의 슬픈 사연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내가 겪은 것보다 덜하면 덜했지 더 심하지는 않을 거야.' 자신의 슬픔을 대신할 다른 것을 찾는 일은 그에게 너무나 쉬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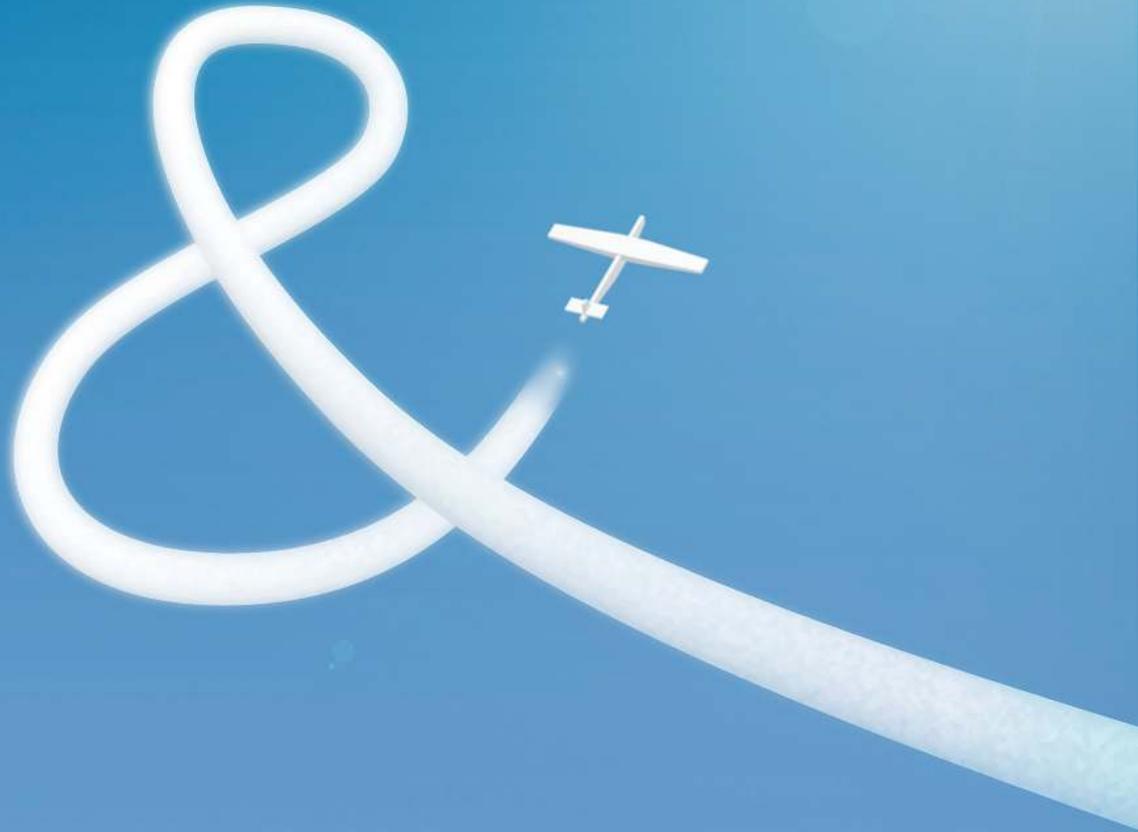


한 바퀴를 다 돌고 난 그는 마침내 고심 끝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어떤 슬픔을 가져왔는지 어디 한 번 볼까요?" 천사의 말에 그는 자신이 선택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것은 그토록 떨쳐버리고 싶어 했던 원래 자신의 슬픔이었습니다.

의아하게 여긴 천사가 물었습니다. "왜 남의 슬픔을 가져오지 않았죠? 당신은 헤어날 수 없는 슬픔에 허덕이며 몹시도 괴로워했었잖아요." 그러자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껏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슬픔의 나무 앞에 서니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나무에 걸려 있는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에 비하면 저의 슬픔은 그래도 조금은 견뎌낼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을 향한 동심은 끝없어...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과 희망.

<http://www.yfk.or.kr>



Culture

36.5

Hollywood English 머니볼

인생은 아름다워 유머 코드의 오페레타 <박쥐>

Art in Everyday 당신의 집은 어디인가

Air-Supply 어른이, 아이유

Preview 1월의 문화행사



머니볼



그가 금을 가졌나? 금이 그를 가졌나?

논픽션 책 <머니볼 Moneyball>은 동명 영화의 원작입니다. <머니볼>은 책의 맨 앞쪽에 영국의 사회사상가인 존 러스킨의 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원문도 함께 소개합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의 난파선에서 승객 한 명이 2백 파운드의 금을 허리띠에 동여맨 채 배 밑바닥에서 발견됐다. 자, 가라앉던 그 순간 그가 금을 가진 걸까, 금이 그를 가진 걸까’ (Lately in a wreck of a California ship, one of the passengers fastened a belt about him with two hundred pounds of gold in it, with which he was found afterwards at the bottom. Now, as he was sinking—had he the gold? or the gold h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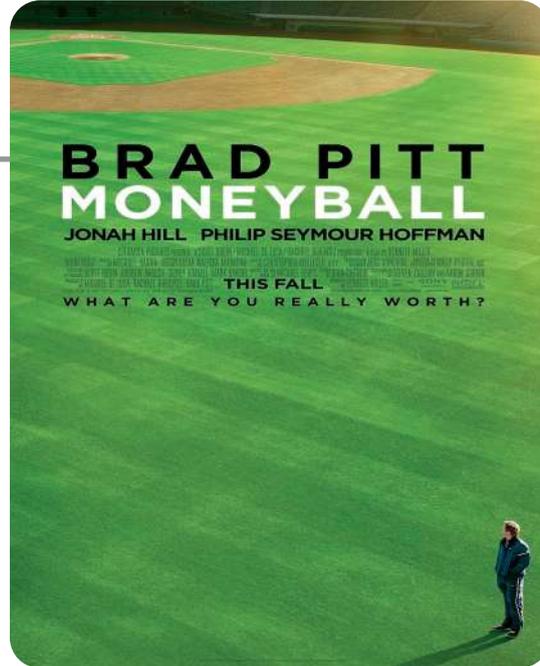
욕심의 노예가 되지 말라

존 러스킨의 명저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Unto This Last>에 실린 위의 글을 왜 저자는 책의 권두에 소개했을까요? 미국 메이저리그의 냉혹한 승부 세계를 파헤친 책인 만큼 ‘욕심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교훈을 설파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반 독자는 물론 경영자를 위한 필독서로 손색이 없을 <머니볼>은 다음과 같은 궁금증에서 집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2002년, 가장 가난한 메이저리그 팀 중 하나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Athletics)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경기에서 이겼을까’ (How did one of the poorest teams in baseball, the Oakland Athletics, win so many games in 2002?)

과대평가 돼 몰락한 선수의 인생역전

영화 <머니볼>은 앞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객관적 시선으로 풀어나갑니다. <머니볼>은 애슬레틱스가 2001년 포스트시즌에서 뉴욕 양키스(Yankees)에게 참패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며, 이어서 구단장인 빌리 빈(브래드 피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쏩니다. 관객은 자연스럽게 그가 2002년을 위해 팀을 어떻게 짤지 궁금해 하게 되고, 동시에 그가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 하게 됩니다. 빌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액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명문대에 진학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호시탐탐 눈독을 들였던 구단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밀며 영입을 제의합니다. 결국 빌리는 프로 행을 선택합니다. 결과는? 무참하게 파멸합니다. 이유는? 그가 ‘과대평가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빌리는 쓰디쓴 교훈을 안고 선수 스카우트로 변신합니다.



‘과소평가된’ 선수를 뽑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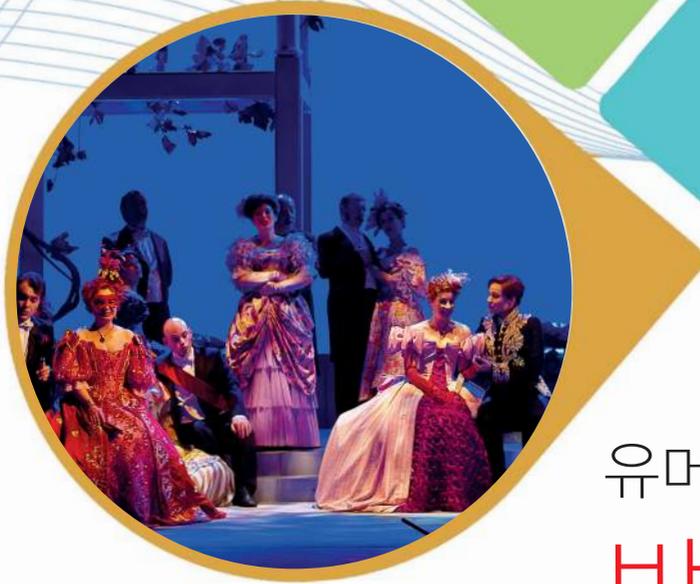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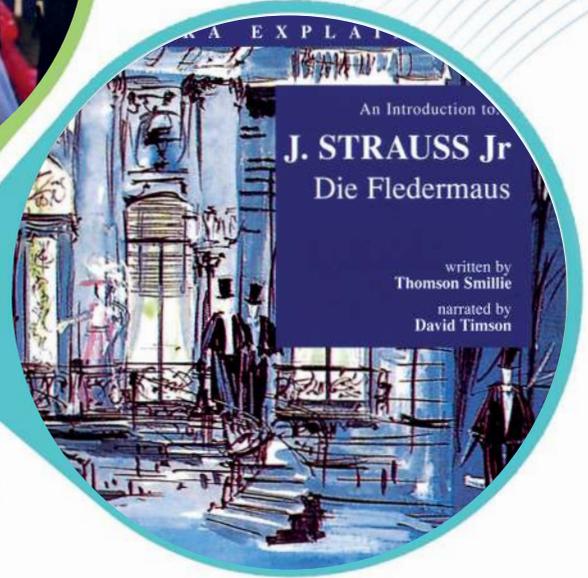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빈곤한 팀인 애슬레틱스의 구단장이 된 후 빌리는 파격적인 원칙을 세웁니다. ‘과소평가된’ 선수를 발굴하는 것이지요. ‘다르게 생각하기’의 실천이라 할 수 있는 원칙을 밀어붙이기 위해 빌리는 젊은 참모를 영입합니다. 예일대 경제학과 출신의 컴퓨터광 피터(조나 힐)가 발탁된 것인데요, 빌리의 오른팔이 된 그는 통계를 분석해 할값 선수들 중 출루율이 높은 선수들을 추천합니다. 빌리는 머뭇거리지 않고 영입합니다. 반대 압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리타분한 원칙과 타성에 젖어 있는 팀 내 노땅(old-timer) 스카우트들은 빌리의 창의적 도전을 비웃습니다. 익숙한 것에 길들여진 그들이 변화를 원할 턱이 없지요. “여자 친구가 못생긴 선수는 자신감이 없어(An ugly girlfriend means that a player does not have confidence).” 이 따위를 예리한 분석이랍시고 내세울 때면 관객은 꿀꿀 혀를 차게 됩니다. 그들에게 미국의 대문호 존 스타인벡의 말씀을 내밀고 싶어집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건 나이 들수록 나타나는 인간의 특성이다. 특히 변화의 결과가 더 좋은 것일 때(it is the nature of a man as he grows older to protest against change, particularly changes for the better)!

20연승 대기록은 달성될까!

과연 빌리의 작전은 먹힐까요? ‘경기장에서 지켜보면 팀이 패한다.’는 징크스를 굳게 믿는 빌리는 가슴만 졸일 뿐 좀처럼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나 하는지 팀은 무려 11연패의 늪에 빠집니다. 노땅 반대파들은 깨소금을 씹듯 좋아합니다. 그래도 빌리는 요지부동입니다. 남들은 오합지졸이라며 깔보지만 자기가 뽑은 선수를 믿고 지켜보는 빌리의 독심에 감동했는지 서서히 팀에 변화가 생깁니다. 시즌 중반에 접어들자 빌리의 판단은 드디어 광채를 발합니다. 선수들의 투지도 빛을 발합니다. 급기야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랄 연승가도를 달리더니 세상에, 20연승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자, 대기록은 달성될까요? 상대는 캔사스 시티 로얄스. 점수는 11대 11입니다. 세 번째 이닝에서 이미 11대 0을 만들었던 애슬레틱스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니만큼 구단 관계자들은 입에 거품을 뉘니다. 드디어 마지막 이닝. 1루수 스카트가 타석에 오릅니다. 포수 출신인데다가 노땅 반대파들이 ‘영입은 결단코 안 됨’을 외쳤던 그가 초구를 노리며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결과는? 확인은 독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영화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초특급 부자 구단 보스턴 레드삭스가 빌리를 영입하려고 천문학적 연봉을 제시합니다. 빌리의 판단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빌리의 말입니다. “고교 졸업 후 선수로 처음 프로에 입단할 때를 빼곤 돈을 보고 미래를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빌리는 소속 팀에 남습니다. 존 러스킨의 글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AF**



유머 코드의 오페레타 박쥐

한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으면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올해에는 취직을 하리라, 영어 성적도 올려야지... 하지만 새로운 다짐과 함께 지나간 시간에 대한 반성도 하게 되죠. 작년에는 왜 이룬 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모님께 못 되게 굴었을까 하면서 말합니다.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는 연말연시... 복잡한 생각에 머리가 아프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운 시간이 바로 이맘때죠.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설 명절을 지내면서 주위 사람들과 덕담도 나누게 되는 이맘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시간입니다.

유럽의 극장에서는 연말연시가 되면 '오페레타'를 무대에 올리고 합니다. 오페라보다 규모가 작은 오페레타는 아주 친근한 이야기로 이루어진 재미있는 음악극이죠. 무겁고 심각한 주제를 담고 있는 오페라와 달리, 우리 주위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소재로 이루어진 오페레타에는 그 안에 유머 코드가 숨

어 있습니다. 현실의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그려내고 비꼬고 풍자하고... 거기에다 흥겨운 왈츠와 폴카가 더해지면서 더욱더 흥겨운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오늘은 오페레타를 대표하는 <박쥐>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 오페레타의 주인공은 '아이젠슈타인'이라는 부자입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아이젠슈타인은 재력을 빼면 시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죠. 상류 사회에 속한 재력가라고 하지만, 그에게선 그 어떤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교양이나 품위 같은 것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재력만 있었던 아이젠슈타인은 세무서 직원과 싸우다가 폭행죄로 감옥에 들어가는 인물이었던 거죠. 하지만 구류처분을 받은 아이젠슈타인은 그것을 잠시 잊춰 둡니다. 공증인 친구 '팔케'와 함께 가장무도회에 가야 했기 때문이죠. 평소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변장하는 가장무도회. 골치 아픈 현실을 잊고 마음 내키는 대로 춤을 추는 가장무도회는 그 어떤 놀이보다 짜릿한 재미가 있겠죠.



하룻밤 놓고 감옥에 들어가려는 마음에 신이 난 아이젠슈타인은 무도회장에서 한껏 들떠 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여인들을 만나며, 감옥 생각도 금세 잊어버렸죠. 그런데 무도회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아이젠슈타인은 집에서 일하는 하녀와 비슷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하녀 '아델레' 아니냐고 아는 척을 하니, 발레리나인 자신을 어떻게 하녀로 볼 수 있냐며 세찬 꾸지람을 듣고 맙니다. 하지만 아이젠슈타인이 알아본 그 여인은 실은 하녀가 맞았죠. 이날 밤만큼은 아델레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도, 우아한 발레리나도 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녀라며 그녀를 알아본 아이젠슈타인이 대단히 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던 중, 아이젠슈타인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을 만납니다. 헝가리의 귀족부인이라는 그녀의 아름다운 자태에 아이젠슈타인은 한눈에 반하고 말죠. 언제나 그렇듯이 회중시계로 여인을 유혹하는 아이젠슈타인은 이번에도 품 속에서 멋진 회중시계를 꺼내 보이며 여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시계가 매력적이기는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귀족부인은 아이젠슈타인이 보여주는 멋진 시계에 혹한 척하며 그와 춤을 추더니, 값비싼 시계를 슬쩍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아이젠슈타인의 바람기를 능가하는 대단한 여인이었죠.

이제 폴카와 왈츠가 울려 퍼지는 무도회장은 절정을 향해 나가고, 술에 취한 사람들은 열기를 더해 갑니다. 바로 그 때, 아침 6시를 알리는 종이 치고... 사람들은 제각각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룻밤의 유쾌한 파티는 그렇게 허겁지겁 끝이 나곤 했죠.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술에 취한 아이젠슈타인은 하룻밤 미뤄뒀던 감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형무소장 말이, 아이젠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미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는 해도, 자신의 이름을 기억 못할 사람은 없겠죠. 아이젠슈타인이 어이없어 하는 동안, 집에 있어야 할 부인 '로잘린데'가 나타납니다. 로잘린데는 아이젠슈타인인 줄 알고 체포된 자신의 애인을 면회하러 왔던 겁니다. 이럴 수가.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부인에게 애인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를 만나러 여기까지 오다니...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아이젠슈타인은 화가 나서 부인을 다그치죠. 그런데 바로 그 때, 부인은 품에서 회중시계를 꺼냅니다. 아이젠슈타인이 다른 여인을 유혹할 때면 꼭 꺼내던 바로 그 멋진 회중시계를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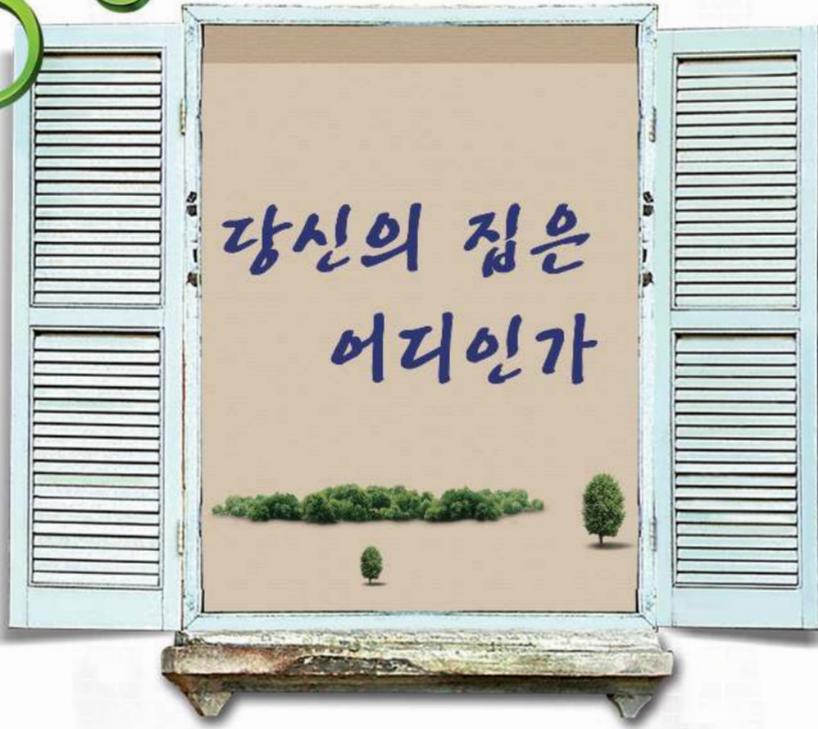
당황하는 아이젠슈타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시 그 전날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 전날, 아이젠슈타인을 잡으러 온 형무소장은 부인과 함께 있었던 애인을 아이젠슈타인인 줄 알고 체포했던 겁니다. 로잘린데는 애인도, 남편도 없는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 가장무도회에 간 것이었고, 하필이면 아이젠슈타인이 감옥행에서 도망간 가장무도회에 간 것이었죠. 물론 아이젠슈타인이 만났던 발레리나 역시 그 하녀였고 말입니다. 결국 서로의 외도를 알게 된 아이젠슈타인 부부는 민망해 하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제까지 결혼한 이후로, 남편에게 그리고 부인에게 단 한 번도 진실된 적이 없었던 거죠. 귀족인 척 하고 싶었던 아이젠슈타인처럼. 이들 부부는 서로 부부인 척 하며 살아온 겁니다.

이 난감한 상황에 갑자기 등장한 친구 '팔케'. 그는 난데없이 나타나더니 이 모든 상황의 해답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4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죠. 아이젠슈타인은 팔케와 함께 가장무도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처럼 가장무도회에서 신나게 놀았던 아이젠슈타인은 술에 취한 팔케를 두고 혼자서 마차를 타고 돌아왔던 겁니다. '박쥐'로 변장한 팔케를 놔두고 말이죠. 아침에 비몽사몽 일어난 팔케는 출근하는 사람들 속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박쥐 복장에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한 팔케는 수치심을 느낀 그날 이후로 복수를 하리라 굳게 다짐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된 일이 바로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실 어젯밤 감옥에 있어야 할 아이젠슈타인을 무도회장에 가게 한 것도 팔케였죠. 기고만장하기가 하늘을 찌르는 아이젠슈타인을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 몰아넣을 수 있었던 것도 팔케가 지난 4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한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공연이 슬픈 결론으로 끝난다면 오페레타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젠슈타인은 부인 로잘린데를, 로잘린데는 남편을 용서하며 삼페인 잔을 부딪칩니다. 서로가 잘못했으니 어떻게 할 수도 없었겠죠. 이렇게 해서 오페레타는 왈츠가 흐르는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끝나고, 관객들은 그저 해프닝으로 즐겁게 박수를 칩니다. 말 그대로 해피엔딩으로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오페레타에 '박쥐'라는 제목이 붙게 된 이유를 아셨죠? 신년음악회처럼 왈츠와 폴카가 흐르는 오페레타 <박쥐>!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가서 웃고 즐기면 하면 되는 한 편의 즐거운 오페레타 이야기였습니다. **AF**

Die Fledermaus





서울시 양천구 목동 제4동 787-13. 2004년, 나는 목동의 집 한 채를 샀다. 2층에 별이 잘 드는 테라스가 있는 붉은 벽돌로 지은 2층집. 지붕에는 어릴 적부터의 로망인 다락방도 있고 집 뒤에는 이층집의 키를 훌쩍 뛰어넘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집을 둘러싸고 있는 아담한 정원에서는 아마도 계절마다 번갈아 피어나는 각각각색의 꽃들도 가꿀 수 있으리라.

아마 이 즈음 되면 입 끝까지 올라온 궁금증을 참기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요새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친구를 사귀는 기준이 된다는 '너희 집은 몇 평이니?' 아니, 법이 바뀌었으니 '몇 제곱미터니?' 라고 해야 할까. 평이든 제곱미터든 정확하게 재보진 않아서 모르겠다. 어쨌든 확실한 건 그 집은 지름 15센티미터 크기의 투명한 아크릴 박스에 넣어진 채 내 책상 위에 몇 년째 놓여 있다는 것 뿐.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내가 돈을 주고 구입한 최초의 컬렉션이다. 집 가격은 자그마치 4천원이었고 중개인은 러브 하우스 부동산의 이해진이다.

미술관의 전시장 한 편에 꾸러진 전원마을에서 내가 이 집을 고르고 있을 무렵엔 벌써 많은 집들이 팔려나가 빈자리가 듬성듬성했다. 작은 집 모형들로 이뤄진 마을이 그렇게 해체되고 있었던 것이다. 작가는 서울시의 스몰다섯 개 구, 각 동에서 100×100m를 떼어 하나의 단위로 삼고, 진짜 동네처럼 보이도록 소방도로까지 내가며 마을을 만들었다. 그리고 임의로 해당 지역의 주소들을 집에 부여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모형 집 판매에서도 청담동이나 삼성동 같은 지역의 집들이 인기를 누렸다는 점. 모형 집으로나마 대리만족을 삼으려는 심리였을까.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묻고 싶던 사랑에 관한 의문, 사

랑이 가득한 집에 대한 현대인들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줬다. 과연 오늘날의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한 것인가. 온 가족의 든든한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집의 탈을 쓴 금고에 불과할 뿐인가. 정말 마음에 꼭 드는 사랑스러운 집을 고른다고 해서 그 집 안에도 그렇게 마음 설레는 사랑을 깃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더불어 단돈 4천원에 자신의 작품을 분양하는 작가의 박리다매(?)는 미술시장이란 말이 이전 아무런 거부감 없이 쓰이는 상업화된 미술계 풍토에도 뭔가 울림을 던져주는 작업이었다.

작가 이해진은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 집을 선택했다. 그러기 위해서 미술관 안에 러브하우스 부동산을 차렸고, 몇 년 뒤에는 2,850명이 살 수 있는 한 개의 집을 지었다. 이번에는 쓰레기장에서 재활용 종이상자를 수집해서 지은 친환경주택. 수집한 종이 상자들을 40 × 20 × 20cm 크기로 재단해서 종이벽돌을 만들고, 그 종이 벽돌을 쌓아올려 집을 지었다. 여기서 또 누구나 궁금해 할 집의 크기는 한 사람이 눕거나 서기에 적당한 200 × 200 × 200cm. 모두 2,850번의 작업이 필요했던 2,850개의 상자가 만들어 낸 공간이다. 이 집은 2주 동안 미술관의 전시장에 서 있었고, 그 다음엔 철거되어 다시 고물상으로 팔려갔다. 집, 아니 한때 집이었던 종이상자들은 평당 가격이 아닌 1kg당 40원의 가격을 받았으며 집값, 아니 한때 집이었던 종이상자들의 값, 아니 미술관 안에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던 작가의 작품 값은 모두 10,520원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작가는 작품을 판매해서 나온 이 돈을 한국 해비타트에 기부함으로써 다시 어딘가의 집의 일부로 돌려보내줬다.



①

- ① 애쉬 키팅, 자이 남산 플러스, 2011
- ② 이해진, 2,850명이 살 수 있는 한 개의 집, 2006
- ③ 이해진, love house 부동산, 2004



②



③

2,850명이 살 수 있는 한 개의 집. 그 집 안에는 방석이 놓여 있어서 관람객들이 직접 그 안에 들어가 볼 수 있게 했는데 집 안의 벽면과 바닥에는 이런 글귀들이 쓰여 있었다.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곳, 감탄이 끊이질 않는 곳’, ‘상쾌한 아침 햇살처럼 하루의 시작이 특별해집니다.’ 한 사람의 몸을 간신히 누일 만큼의 그 공간에서, 언젠가 한두 번쯤은 보았을 법한 브랜드아파트의 광고문구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광고가 주는, 입안에서 살살 녹는 듯한 속삭임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을까.

세월이 흘러 이제는 2011년. 시골 사람들이 서울 구경을 오면 다들 한 번 씩은 가본다는 여의도의 63빌딩을 지그시 내려다보는 높이 284m의 오피스 빌딩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 국립현대미술관의 서울관을 위한 공사가 한창인 소격동 공사현장 가벽에는 이런 놀라운 아파트 광고가 나붙었다. 이름 하여 ‘자이 남산 플러스’. 이 아파트가 내세우는 선전 문구는 이랬다. ‘마치 새가 되듯 넓게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아파트’, ‘세계 8대 불가사의처럼 4차원 세계의 천국에 머무는 것 같은 황홀한 경험’, 천상에서의 삶이 가능한 열쇠를 거머 쥐라며 개인전용 비행기와 헬리콥터 제공을 약속하는 이 호화 럭셔리 아파트의 완공예정일은 2012년 12월 22일.

이 발칙한 프로젝트를 제안한 이는 호주에서 건너온 작가 애쉬 키팅이다. 2008년 국내 한 미술단체의 초청으로 한국에 들어와 한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작업한 작가는 당시 작업 결과를 합정동에 있는 한 유명 브랜드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이자 갤러리에서 전시했었다. 그리고 이번 작업을 위해 다시 서울을 찾았을 때, 그는 자신의 작품을 전시했던 합정동의 그 갤러리를 다시 한 번 찾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갤러리에 들어서보지도 못한 채 입구에서 쫓겨나야 했다. 그 아파트의 거주민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런 실랑이를 겪은 끝에 그의 눈에 들어온 건, 갤러리의 길 맞은편에 위용을 자랑하고 선 완공을 앞둔 아파트 단지였다. 2년 전만 해도 아무런 흔적도 없던 그곳에 더 스마트하고 아름다워졌다. 명품 아파트가 마법을 부리듯 들어서 있었다는 것. 이쯤 되면 작가가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를 내 손으로 지으리란 오기를 부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

을까. 그나마 서울 안의 녹지로 남아 있는 남산 기슭에, 남산 타워쯤은 장난감처럼 보일 법한 트랜스포머 같은 형태의 거대한 아파트가 지어지는 모습을 상상할 만하지 않은가.

왜 집이 카페 같아야 하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지만 너도 나도 카페 같은 집을 부러워하고, 인간의 타고난 기능들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불편하게 사는 게 정답이리는데도 조금 더 편한 세상을 내세우며, 입으로는 함께 살자면서도 프리미엄이니 차별화를 앞세워 남과는 다른 삶을 갖들고 싶어 하는 우리들의 집에 대한 생각을 이들 작업 앞에서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얼마 전,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나의 러브 하우스를 들여다보며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공상에도 빠져 있다가, 문득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집 주소를 넣어봤다. 뛰어난 과학기술에 감사하며 위성사진, 항공사진에 이어 거리 뷰로 그 집을 확인해 본 일이 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한 번의 클릭을 더했을 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전면 유리에 붙은 세탁소라는 글자였다. 내 모형 집에 붙어 있는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4동 787-13. 새 주소체계로 이제는 주소마저 바뀌어버린 그곳엔 허름하지만 정겨워 보이는 세탁소가 서 있다. 저 혼자 잘난 체 하는 으리으리한 아파트가 아니어서, 어쩌면 작가가 꿈꿨던 따스한 가정의 사랑이 깃들기에 충분한 허술한 집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AF**

어른이, 아이유.

이 글을 읽을 누군가는 부러워하다 화가 날지도 모를 이야기. 얼마 전 새 앨범에 대한 인터뷰를 위해 아이유를 만났다. 아이유는 계속된 스케줄로 인해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살짝 생겼고, 약간은 피곤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인터뷰가 시작되자 아이유는 어떤 질문이든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말했다. 노래마다 어떻게 창법을 다르게 했는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저없이 말했다. 높아진 인기만큼 근거없는 소문에 휘말리거나 하는 질문에 “저에 대해 좋게 말하는 사람도,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다 이해가 돼요.”라며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너 실망했어.’ 라는 얘길 들었을 때 상처받지, 별로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진짜 신경을 안 쓰거든요.”라는 말을 들을 때는 이 소녀가 어떤 10대 시절을 보냈을지 짐을 정도였다. 그러니 정재형, 이적, 윤상, 김광진 등 한국 최고의 작곡가들이 이 소녀가 최대한 마음대로 노래 부르도록 놔두는 것도 이해가 간다. 알아서 먼저 생각하고,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아이유를 어떤 ‘삼촌’인들 예뻐하지 않을까.

아이유의 인기는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이라고 노래하는 깜찍한 여동생의 이미지가 큰 영향을 줬지만, 동시에 데뷔 당시부터 어쿠스틱 기타를 들고 잔잔하게 노래하는 속 깊은 소녀의 모습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KBS <드림하이>에서도 아이유는 또래에 비해 생각도 많고 마음도 넓은 소녀를 연기했다. 아이유처럼 10대답게 귀엽고, 동시에 10대답지 않게 성숙한 생각을 가진 아이들은 요즘 대중문화계의 한 가지 흐름처럼 보인다.

올해로 만 스물이 됐지만 소녀시대의 서현도 데뷔 당시부터 소녀시대의 귀여운 ‘막내’ 이자 멤버들 사이에서 ‘애 늙은이’ 로 불릴 만큼 깊은 속이 있는 캐릭터로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원더걸스의 선애나 미스 A의 민은 데뷔 당시 무대 위에서는 귀엽게 춤추고 노래하면서도 무대 아래에서는 오랜 연습생 생활에서 비롯된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Mnet <슈퍼스타 K>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출연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슈퍼스타 K>의 초등학교 출연자 손예림은 8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사연을 이야기하며 어른도 흉내 내기 어려운 깊은 감정으로 노래를 불렀고, MBC <위대한 탄생>의 초등학교 6학년 이서연은 심사위원들이 자신의 단점을 지적할 때마다 노력하는 모습으로 극복하는 대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KBS <톱밴드>의 우승팀인 그룹 특식의 드러머 임슬옹 역시 10대의 나이에 자신의 곡을 직접 편곡하며 자신들의 음악세계와 그룹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거침없이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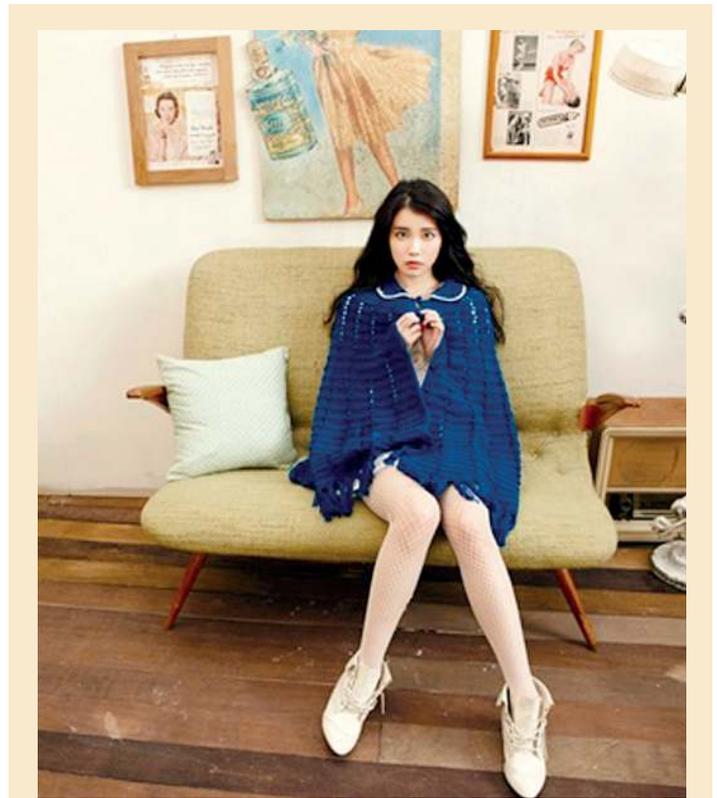


연예계는 어린이든 노인이든 성공과 실패가 명확하게 나뉘지는 곳이고, 여기서 성공하려면 소년이나 소녀가 아니라 '직장인'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초등학교생부터 JYP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을 시작, 데뷔에 8년이 걸린 그룹 2AM의 조권은 데뷔 후 "직장인 8년차는 승진이라도 있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연예계에 유독 생각 많고 속 깊은 10대들이 많은 건, 그들이 그 나이에 보통 어른들이 하는, 또는 어른들도 잘 하지 못할 일들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소녀시대는 모두 20대 초반의 나이에 전 세계를 돌며 공연을 한다. 체력은 물론 정신력 역시 최고 수준이 아니면 그 일정을 소화하기 쉽지 않다.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실 새 없이 올라가는 무대에서는 늘 웃으며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어지간한 중년의 직장인도 갖기 어려운 강인한 정신력을 10대부터 가져야 하는 셈이다.

이는 단지 10대 연예인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어른이'라는 말이 종종 쓰인다. 아직 어린이의 나이면서도 어른처럼 깊은 속을 가진 10대들에게 붙여지곤 하는 이 말은 요즘 그만큼 어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또는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 10대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0대의 나이에 창업을 하기도 하고, 10대의 나이에 자신의 인생진로를 세우기도 하며, 어른스러운 말투를 곁들여 가며 자신의 인생관에 대해 말하기도 한다. 그들이 괜히 어른처럼 행동하고 싶어서 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대학에 가고, 어느 회사에 취업하는지가 인생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된 지 오래다. 또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또는 다른 분야에서 활약하면 사회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렸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미 중·고등학교 진학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미래를 생각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른이'는 단지 어른 같은 생각만 10대에 하는 것으로는 될 수 없다. 아이유는 어린 시절 어려운 집안형편에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데뷔해서는 '마쉬멜로우'와 '좋은 날' 등에서 귀엽고 감쪽같은 여동생, 또는 조카의 이미지를 보여준 뒤에야 성공했다. 사회는 10대에게 빠르게 성공하는 것을 권하고, 10대는 성공을 위해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 어른이 된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어른들 앞에서 어린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귀여운 모습을 보여줘야 더 사랑받는다. '어른이'란, 어른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마음을 가졌으면서도 동시에 아이 같은 해맑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가능한 말이다.

세상이 변하면서 아이들도 변한다. 그 아이들이 일찌감치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어른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 자신의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어린이와 같은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을 원하는 것은 어른들의 욕심일지도 모른다. 아이유는 앨범을 만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로 함께 작업한 기라성 같은 뮤지션들이 모두 자신을 동등한 입장에 놓고 대화를 했다는 것을 꼽았다. 아이유의 이번 앨범에는 '너랑 나' 처럼 밝은 곡들도 있지만, 후반에는 쓸쓸하고 어두운 감성의 곡들도 있다. 어느 한 쪽만이 아이유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이유에게 '삼촌'을 외치는 귀여운 모습만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10대 소년, 소녀들이 사회에 어른처럼 적응해야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어른들은 적어도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로, 그들은 어리기만 하지 않다. **AF**



콘서트보다 신나는 무대, 뮤지컬 <미녀는 괴로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중적인 스토리, 새해 부담 없이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뮤지컬의 화려함과 재미를 가득 선사할 수 있는 무대가 충무로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바로 뮤지컬 '미녀는 괴로워'. 공연 티켓 하나로 뮤지컬과 콘서트 일석이조의 기쁨을 만끽하자.

5년 전, 수많은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제치고 당당히 흥행 1순위를 차지하며 국내 영화계의 거센 파장을 일으켰던 <미녀는 괴로워>. 그 인기의 OST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만큼 많은 사운드 트랙이 각종 음반 차트를 석권했다. '마리아', '뷰티풀 걸', '별' 등 제목만 들어도 멜로디가 그려지는 히트곡들을 생생한 라이브로 들어보자. 특히 카라의 여신 규리의 무대는 기존의 바다가 들려주는 음악과 달리 한류의 감동을 뮤지컬 무대로 옮겨온 듯하다.

167cm, 125kg, K-1이나 씨름판에 나가도 거뜰할 체격을 가진, 그러나 한 남자에게 사랑 받고 싶은 어린 마음의 소유자 한별. 신이 그녀에게 허락한 유일한 선물인 천상의 목소리로 가수를 꿈꾸지만 미녀 가수 '아미' 대신 노래를 불러주는 '얼굴 없는 가수'의 희망 프로젝트. 새해 다짐을 위한 마인드 컨트롤 무대의 막이 올랐다.

- 기간 : 2월 5일까지
- 장소 : 서울 충무아트홀 대극장
- 가격 : R 9만 / S 7만 / A 5만원
- 홈페이지 : www.musicalbeautifulgirl.com



PREVIEW

소설 속 감동은 서막에 불과했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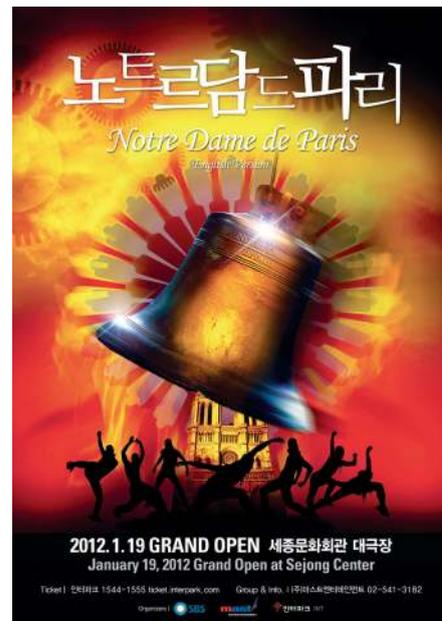
사운드 트랙만으로도 불만한 가치가 있는 뮤지컬이 또 있다. 바로 '노트르담 드 파리' 오리지널 팀의 아시아 투어이다. 지난 11월 25일, 중국 광저우의 백운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펼쳐진 아시아 투어의 첫 공연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9년간 기다려온 중국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그대로 증명했다.

OST도 압권이다. 주옥 같은 넘버들로 가득 찬 OST는 현재까지 1,200만 장의 경이적인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목소리로 시를 쓰는 듯한 배우들의 폭발적인 가창력은 관객의 마음을 사로 잡기에 충분하다. 눈을 감고 뮤지컬을 들어도 내용이 생생히 그려질 만큼 음악이 대단한 힘을 지닌 공연이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곡 위에 대사가 얹혀진 대표적인 '송 쓰루 뮤지컬'이다. 작곡가 코치안테는 이 작품을 '대중성을 지향하는 오페라'라고 불렀다. 대사가 많은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차이를 둔 프랑스 뮤지컬의 시초이자 유럽 뮤지컬의 부흥을 일으킨 기념비적 작품인 셈이다.

불거리도 풍부하다. 노트르담 대성당을 상징하는 대형 무대세트와 100kg이 넘는 대형 종들, 감옥을 상징하는 쇠창살, 움직이는 기둥과 가고일 석상 등 30톤이 넘는 오리지널 프로덕션이 설치될 예정이다. 관객의 시선이 무대 시작과 끝을 오가는 동안 감정은 어느새 감동의 도가니에서 눈물 바다를 헤엄칠지도 모른다.

- 기간 : 1월 19일~2월 26일
- 장소 :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가격 : R 15만 / S 12만 / A 9만 / B 6만원
- 홈페이지 : www.notredamedeparis.co.kr



Opinion

독자기고 당신은 머리 위의 푸른 하늘만 보는가
충분히 숭고하고 명예로운 희생

Health Diary 겨울철, 건강한 심혈관 관리를 위해!

책마을 2012년을 맞이하며

당신은 머리 위의 푸른 하늘만 보는가

- 두 분의 순직 조종사를 애도하며

글. 차인숙 | 소설가, <창공클럽> 회원



‘T-59 훈련기 추락, 최고의 조종사 2명 순직.’

흐린 하늘 때문에 괜스레 답답했던 지난 5일, 뉴스에서 ‘조종사 순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베테랑 조종사인故 권성호 중령과故 박정수 중령, 언론은 젊은 조종사들의 삶 면면을 계속 보도했고 그동안 집필을 위해 많은 조종사들을 접했던 나는 마치 내 피붙이를 잃은 듯 깊은 슬픔에 빠졌다.

대한민국 공군 전투조종사, ‘빨간 마후라’라고 불리는 이들은 누구인가? 전투조종사들은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신념 하나로 오늘까지 달려온 군인들이 아니던가. 늠름한 보라매로 거듭나기까지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3차원의 환경과 마하의 속도, 몸무게의 9배에 이르는 중력과 싸우는 사람들. 비행할 때마다 온몸의 실타래가 터지는 극심한 고통이 있음은 알지만, 지켜야 할 조국의 하늘이 있기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격의 각오를 다지지 않았던가.

세속의 부귀영화와 지상의 편안함을 뒤로하고 매일 죽음을 각오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조종사들은 조국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수많은 선배들을 떠올리며 오늘도 활주로를 박차올 것이다. 6·25전쟁 발발 후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 공군의 첫 전투기인 F-51 무스타를 몰고 적진을 향해 돌격했다는 선배조종사는 그들의 영원한 정신적 스승이었으리라. 일본 이타쓰케 주일 미공군 기지에서 단 하루 동안 전환 훈련을 마치고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심정으로 현해탄을 건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 선배조종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조국산하가 있다는 사실을 두 조종사는 결코 잊지 않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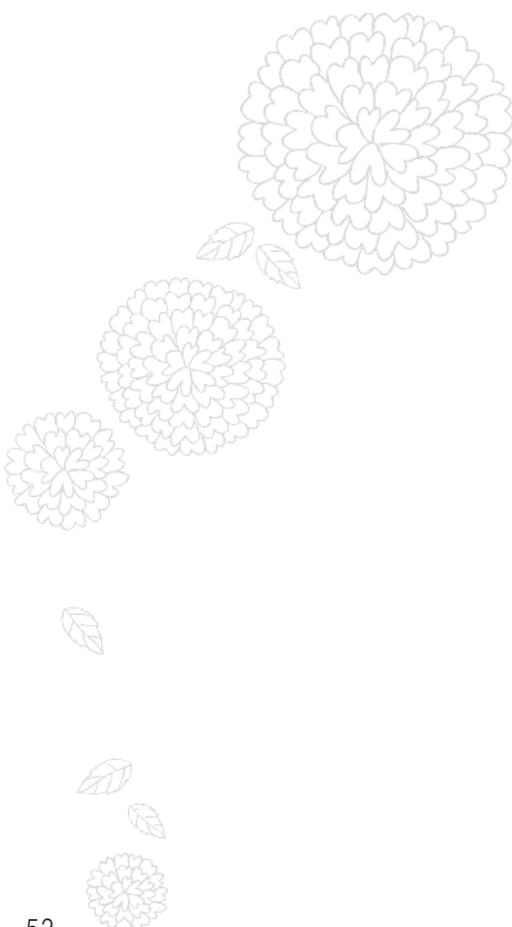
진정 그들은 뛰어난 우수교관이었고 의로운 편대장이었다. 이들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투조종사들은 의로운 이들도이다. 그들은 ‘죽어도, 또 죽어도 겨레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짐해 온 애국자들이다. 그들은 하늘과 비행을 너무 사랑하기에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피가 푸른색이라고 믿는다. 오늘도 그들은 얼굴을 구기듯 헬멧에 집어넣고 활주로 위를 날아오른다. 공지에 불구덩이를 매단 채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성총권을 넘나든다. 산소마스크를 쓴 그들은 살인적인 중력으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쏠리는 고통에도 자신의 생리적 한계와 싸우며 오로지 영공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하늘에 오르고 또 오른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앞에 푸른 하늘만 보이는가? 저 푸른 하늘너머 구름 사이로 우리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전투기를 조종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투조종사가 있음을 알고 있는가?

푸른 하늘을 보며 그들을 기억해 달라.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았던 우리의 공군 전투조종사가 있었노라고.

여성 최초 전투조종사인 아내와 아들을 둔 부부 전투조종사였으며,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우수교관이었으며, 전투기를 조종하기 위해 10킬로그램을 감량하며 치열하게 살았던 파일럿이 있었음을 기억해 달라.

국가와 국민이라는 대의를 위해 하늘에 살다, 하늘로 돌아간 두 분 전투조종사의 명복을 빌며 손을 모은다. 윈스턴 처칠 경이 1940년 8월 20일 영국의회에서 연설했던 것처럼 이렇게 적은 전투조종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지를 기억했으면 한다. **AF**



충분히 숭고하고 명예로운 희생

글. 현지선 | 공군 가족

뉴스를 보다가 목 놓아 울었다. 12월 5일 T-59 훈련기 사고로 순직한 조종사 두 분의 영결식에 관한 기사였다. 꼬마 조종복을 입고 참석한 故 박정수 중령의 딸 하윤(2)양이 박 중령의 영정사진을 가리키며 “아빠~”하고 달려가 주변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는 이야기, 故 권성호 중령의 아내이자 동료 조종사이기도 한 박지원 소령이 아들 서준이에게 “아빠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 하늘에서도 우리를 지킬 것이다.”라고 말하며 꼭 안아주었다는 이야기를 읽다가 내 눈물샘은 그만 붓물처럼 터져 버렸다.

공군과 아무런 연 없이 스무 해 넘도록 살다가 공군 장교인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조종사가 아니다. 하지만 비행단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의 조종사 가족들과 왕래가 잦다. 처음에는 밤낮이 따로 없는 전투기 소음이 괴롭기만 했는데, 이제는 소음 속에서도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신다. 평일날 하늘이 맑은 데도 비행기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무슨 일 있는 것 아닌지 불안해 할 정도까지 나는 공군의 가족이 되어갔다.

그러나 애사에서만큼 뼈저리게 가족임을 느낄 때가 있을까. 어쩌다 사고로 젊은 조종사들을 다른 세상으로 보낼 때 나는 그야말로 역장이 무너지는 비통에 잠긴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관사에 살고, 같은 마트를 가고, 같은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같은 놀이터에서 나란히 그네를 밀어주는 이웃이었지 않은가.

기독교회도 같이 다니고 아이들 연령대도 비슷해서 소위 ‘단짝 가족’으로 붙어 다녔던 ㄱ씨는 조종사의 아내다. 하지만 조종사들의 생활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ㄱ씨나 나나 거기서 거기다. 전투기 조종사인 남편이 매일 하는 비행이라는 게 말그대로 중력의 아홉 배까지 견뎌야 하는 고된 임무라는 사실이나, 연평도 포격사건 때 남편이 가공할 미사일을 장착한 전투기를 타고 이륙해 일촉즉발의 시공간을 비행하고 돌아왔다는 사실도 ㄱ씨에게는 TV를 통해 헤아려보는 어렵듯한 그림일 뿐이다. 일주일에 사나흘은 밤늦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고(안 들어오는 날은 알라트Alert라고 부르는 조종사 비상대기 근무), 주말에는 피곤하다며 TV 리모컨을 끼고 누워있고, 웃도 아무데나 너저분히 벗어 놓는 천덕꾸러기 아저씨일 뿐이다.

그런 ㄱ씨에게도 남편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가올 때가 있다. 동료 조종사가 순직했을 때 엄숙히 정복을 입고 조문하는 침통한 모습, 사고 후에도 의연히 비행복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 아내가 불안해 할까봐 부러 더 크게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볼 때가 그런 때라고 한다.

공군 가족들 사이에서 전투기 조종사들이 얼마나 고되고 또 얼마나 위험한 임무를 하고 있는지는 누구도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전투기를 타고 기동을 하면 많게는 중력의 아홉 배라는 9G까지 견뎌야 한단다. 그럴 때는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는데다가 몸 안의 피가 아래로 몰려 시력이 저하되고 의식을 잃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팔다리의 실핏줄들이 다 터져 퍼렇게 붓는 경우도 예사라고 한다. 그런 어려움을 견디면서 고속의 전투기를 조종해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그것도 외로운 조종석에서 혼자.

우리 사회의 몹쓸 병 중 하나는 모든 가치들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인데 조종사들도 종종 그 사회적 병리 현상의 희생양이 되곤 한다. 비행사고가 나면 ‘공군이 대당 수백억이 넘는 고가의 항공기 한 대를 또 잃었다.’는 힐난들이 언론이나 인터넷에 넘친다. 사고의 원인이 조종사의 인적과실로 나타날 경우는 더 매정하다. 사고조사의 목적은 사고의 원인을 밝혀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잘잘못을 따져 이미 고인이 된 분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고의 원인이 어떻게 밝혀지건 조종사들의 희생은 충분히 숭고하고 명예롭다.

정기 인사이드가 있는 겨울이다. 주변의 많은 군 가족들이 이삿짐 준비하랴, 관사 알아보랴, 애들 학교와 학원 옮기랴 난리 법석이다. 대개 두세 달은 주말부부를 각오해야 한다. 결혼하고 이번이 일곱 번째라는 내 단짝 ㄱ씨네도 이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난 새해에도 ㄱ씨의 남편을 포함해 대한민국 모든 조종사들의 안전비행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려 한다. **AF**



STAY HEALTHY

겨울철, 건강한 심혈관 관리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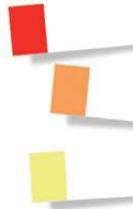


새해를 맞이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1월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추운 겨울이라 우리 몸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종류의 복병이 산재하고 있네요. 요즘같이 찬바람이 불고 일교차가 심해질 때에는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기 쉽죠.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 고혈압, 비만, 고콜레스테롤증이 있는 분이라면, 추운 겨울 실내·외의 기온 차에 따른 혈압변화도 크게 나타날 겁니다. 이는 뇌졸중 및 심장병 등의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으니,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달 <Health Diary>는 겨울철, 심혈관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겨울철 심혈관질환

따뜻한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떠지지 않는 눈을 비비며 문을 나섭니다. 차가운 공기가 나를 맞이하네요. 이럴 경우, 인체는 몸이 빠르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급격하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맥박이 빨라지고 혈관을 수축하게 만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급격한 혈관수축은 심장 및 뇌에 공급하는 혈액량을 줄이는데, 심장은 이를 방지하고자 더 빠르게 운동하게 됩니다. 이는 심장에 커다란 부하로 다가오죠.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면 이러한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자칫 부주의할 경우 심근경색 또는 뇌졸중 등의 무서운 혈관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 비만, 고혈압 및 고콜레스테롤증의 위험인자가 있거나, 연령이 높은 분일수록 심각한 심혈관질환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증상은 심근경색 및 뇌졸중 등의 심혈관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 심장전문 의가 있는 병원 및 군병원의 순환기내과를 찾아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 가슴 부위가 답답하거나 통증, 호흡곤란 증세 등이 느껴진다.
- 손발이 저리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온다.
- 갑자기 말을 더듬거나 어눌해진다.
- 눈이 침침해 앞이 보이지 않는다.
- 현기증이 나서 정신이 아찔해진다.
- 평소와 달리 격렬한 두통이 발생한다.
- 뒷목이 뻐뻐하고 머리가 무겁다.

겨울철 심혈관질환 예방

겨울철 심장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몸의 보온유지가 중요합니다. 실외에 나갈 때는 충분히 옷을 꺼입고 나가고, 목도리나 머플러 등을 이용하여 목을 찬바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십시오. 심근경색 및 뇌졸중은 겨울철 새벽과 아침에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일어난 직후, 차가운 바깥바람을 쐬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연유로 겨울철에는 과도한 아침운동 대신, 가볍게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일 평소 운동을 하지 않았던 분이라면, 봄을 기다려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특히 음주와 흡연은 심혈관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겨울철 새벽녘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절주와 금연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추가적으로 심근경색 및 뇌졸중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이 건강할지라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기를 추천합니다.



심혈관질환 특수 검사

심혈관질환을 의심케 하는 증상의 경우 쉽게 자각되는 반면, 일부 허혈성 심혈관질환은 무증상으로 발생되기 쉽습니다. 이런 무증상질환은 정밀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으며,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혈관 내 경화병변이 있거나 고혈압을 가진 경우가 많으므로 겨울철에는 주의해야겠습니다.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진단하는 검사로는 혈당, 혈압측정, 콜레스테롤 검사가 있습니다. 그 외 특수 영상진단검사로 심장/경동맥/뇌혈류초음파를 포함, MRI 및 CT 촬영 등이 있습니다. 경동맥초음파는 심장에서 뇌로 이행하는 목 부위 혈관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 부위 혈관이 두꺼울수록 향후 뇌졸중이나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이 높아집니다. CT 및 MRI 검사의 경우, 심장 및 뇌혈관의 정밀촬영을 통해 혈관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항공우주의료원은 유능한 심장전문군외과관이 있는 것은 물론, 2011년도에 심장기능검사실 개설 및 군 최고사양의 CT장비가 도입돼 심혈관 특수 진료에 크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끝맺으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라고 했듯 심혈관질환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면 해당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더라도 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을 한 번 이상이 생기면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공군 식구분들에게, 새해인사 올립니다. 아무썩 모든 공군 식구분들께서 2012년에도 씩씩이 뛰는 심장처럼 열심히 운동하셔서 건강하시고, 사랑의 상징인 심장처럼 상호간 따뜻한 온정을 베풀었으면 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공군 모두 함께합시다~! **AF**





2012년을 맞이하며

먼저,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책마을> 가족 여러분과 그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계획하시는 모든 일과, 희망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길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또 다시 새로운 한해를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는 누구에게나 항상 새로이 주어지는 시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해에 맞이하는 새날들은 더욱 더 새롭기만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책마을> 가족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저는 매년 새로운 계획, 새로운 다짐으로 한해를 시작하면서도 막상 시간들을 보내다보면 또다시 게으름에 젖어 후회의 나날들을 보내곤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짐하지요. 다음에는 지키기 힘든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실천 가능한 작을 일부러 계획하고 다짐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계획이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세워놓은 불완전한 계획들을 탓할 일도 아니겠지요. 분명 계획을 세우던 순간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결국 그 어떤 훌륭한 계획보다 그것을 실천하는 자신 스스로의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2012년 1월에는 저의 계획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책 몇 권을 골라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경험으로 고민하고 계실 우리 <책마을> 가족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봅니다.

「365 Thank you」(존 크래릭 저, 차동엽 역, 한국경제신문사,

2011), 「Love Yourself」(로렌스 크레인 저, 편기욱 역, 가디언, 2011),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박영선 저, 위즈덤하우스, 2011)입니다.

「365 Thank you」는 좌절과 시련을 경험하던 존 크래릭이라는 미국의 변호사가 감사의 마음을 바탕으로 15년간 365편의 감사편지를 쓰면서 변화된 삶의 경험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동안 참 많은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서 살아왔는데, 새해에는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 가려 합니다.

「Love Yourself」는 그동안 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스스로를 비판하고 자괴감에 잘 빠지는 제게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삶의 아주 작은 변화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즉 '자기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에 서툰 분들께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는 미국에서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저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많은 이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점들을 정리한 것으로 이른바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책의 마지막 부분처럼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삶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가운데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사는 2012년을 보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AF**

2012 January

Vol.403

P
O
S
T
C
A
R
D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키는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들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을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 엽서나 월간 「공군」 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 - □□□□

요 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1.5.1~2012.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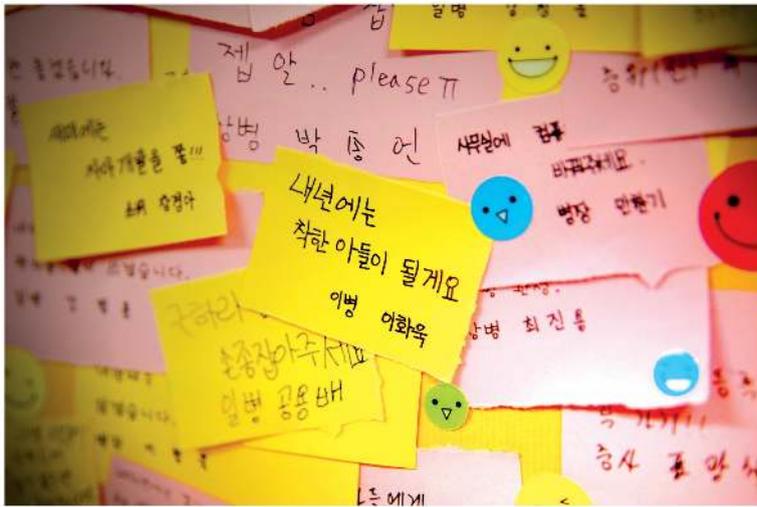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월간 「공군」 퀴즈 이벤트 응모는 QR 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받는 사람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새해에는 모든 독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월간 「공군」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

◎ 월간 「공군」 1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1월호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3. _____

퀴즈 정답자에게는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월간 「공군」 1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1월 31일까지

1. 이탈리아의 군사이론가로 항공전략사상의 선각자로 평가받는 이 인물은 누구인가?
2. 오페라보다 규모가 작은 공연으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소재로 이뤄진 음악극은 무엇인가?
3. 아직 어린이의 나이면서도 어른처럼 깊은 속을 가진 10대들을 일컫는 신조어는 무엇인가?

11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라인베커 작전 2. 안토니오 반데라스 3. 이발사

퀴즈 당첨자 경기 안양시 **임도혁** ● 광주 남 구 **오남록** ● 경기 성남시 **이홍복**
부산 금정구 **임현준** ● 제주 서귀포 **양가인** ● 충남 천안시 **허지행**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heyclickman@gmail.com(인터넷)
ipod4you@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02-506-6935 / 042-552-6935

